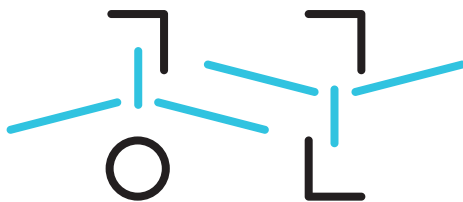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2022
08
5 3 0

<http://afzine.co.kr>



Contents

04	특집	블랙이글스, 10년 만에 영국 하늘을 수놓다
12	기획	항공우주력 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다
16	Aero Detail	공대지미사일 Part II
22	무에서 유를	장창(長槍) -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전우를 믿다
26	내 옆의 공군인	30여 년간 오지마을에서 이발 봉사를 해온 박영관 이발사
32	지금 이 순간!	공군 소식 & 참모총장 동정 & 부대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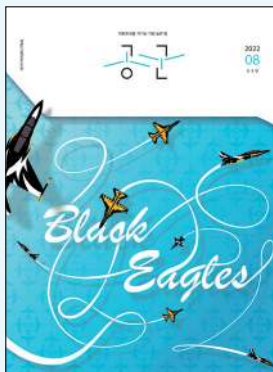


표 지(앞)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기동 (일병 황원진)
표 지(뒤) 블랙이글스가 하늘에 수놓은 태극 (자토 작가)

발 행 일 자 2022년 8월 1일(통권 제530호)
발 행 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정상화
편 집 인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대령 윤영삼
편 집 감 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장 중령 김승진
기 획 · 편 집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대위 김용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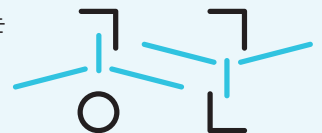
디자인·인쇄 국방출판지원단(F22060208)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 및 인터뷰는 개인의 견해를 알려드립니다.



42	한 달, 한 권	디즈니만이 하는 것
44	명상을 말하다	보는 것과 아는 것
46	영화로운 나날	관람이 아닌 체험의 영화 『탐간: 매버릭』
48	클래식 톡톡	중세의 슈퍼스타 아이돌, 카스트라토
50	트렌드가 보인다	해시태그가 주는 우리의 요즘

52	생각하는 그림	이웃사촌
54	'22-1차 공군 우수독후감 최우수작	현대사회에서의 상실(喪失)에 대한 단상(斷想) (제15특수임무비행단 항공의무대대 대위 이민섭)
57	공군인의 편지	할아버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커다란 산 (제34방공관제전대 상병 윤주해)
58	수용의 미학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59	마음의 소리	독자 참여 코너



블랙이글스, 10년 만에 영국 하늘을 수놓다



10년 전, 세계 최고의 국제 에어쇼가 펼쳐지고 있는 영국 하늘에 낮선 항공기 편대가 나타났다. 정교한 대형을 이룬 그들은 아찔한 비행을 선보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그들 머리 위에 태극을 수놓으며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보여줬다. 10년이 지난 지금, 블랙이글스가 다시 영국 하늘에 나타났다. 그들은 7월 중에 열린 사우스포트(Southport)·리아트(Royal International Air Tattoo, RIAT)·판보로(Farnborough) 국제 에어쇼에서 대한민국 공군과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렸다. 특히 리아트에서는 2012년에 이어 다시 한번 최우수상(The King Hussein Memorial Sword)과 인기상(The 'As the Crows Flies' Trophy)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블랙이글스 조종사들의 화려한 비행에는 정비사들의 공이 컸다. 지난 에어쇼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정비사들이 직접 T-50B 항공기를 분해해 현지에서 재조립하며 우리 공군의 뛰어난 정비 기술력도 입증해냈다. 이번 에어쇼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블랙이글스 조종사와 정비사를 만나 에어쇼 준비과정과 참가 소감을 들어봤다.



AF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양은호 소령 저는 대한민국 공군 제53특수비행전대(이하 '53전대') 제239특수비행대대 비행대장 및 블랙이글스 팀장(1번기) 양은호 소령입니다. 2008년에 임관해 F-4E 전투기 조종사, T-50 고등비행훈련 교관, 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 F-4E 비행교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AF 1번기 조종사는 비행 중 어떤 역할을 하나요?

1번기 조종사는 블랙이글스의 리더로서 8대의 항공기가 이륙하면 먼저 항공기 이상 유무를 파악합니다. 또한 구름 높이와 시정을 파악하고 현재 기상상태에서 수행 가능한 에어쇼의 형태를 결정하고 지시합니다. 밀집 편대 기동 시에는 여러 가지 대형을 선보일 수 있도록 팀원들에게 대형변경을 지시하며, 분리 기동 시에는 5번기, 7번기 조종사와 함께 진입 시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AF 전 세계 공군과 비교했을 때, 블랙이글스의 역사와 비행 능력은 어느 수준입니까?

블랙이글스는 1953년 창설되어 69년의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특수비행팀입니다. 1953년 F-51로 시작하여, 총 다섯 번 기종 변경을 한 후, 2009년부터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8대의 T-50B 기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산 초음속 항공기를 사용하여 특수비행팀을 운영하는 국가는 많지 않으며, 8대로 운영하는 국가는 대



한민국이 유일합니다. 10년 전과 같이 이번 리아트에서도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특수비행팀이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블랙이글스는 전 세계 어느 팀과 실력을 겨루어도 뒤처지지 않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량을 보유한 팀입니다.

AF 평소 성공적인 비행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컨디션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블랙이글스는 대체조종사가 없습니다. 조종사 중 한 명이라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비행할 수 없다면 에어쇼를 할 수 없습니다. 평소 배탈이 나지 않게 되도록 익힌 음식을 먹고 아침마다 가벼운 산책이나 조깅을 하며 오후에는 근력 운동을 하는 등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AF 영국 에어쇼에 처음 참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각오로 임하셨나요?

국내의 익숙한 환경에도 쉽지 않은데 낯선 환경에서 비행하다 보니 더욱 어렵고 긴장되었습니다. 낯선 문화, 지형, 기후 및 언어는 세밀한 기동에 집중해야 하는 에어쇼를 수행하는 데 주의를 분산시키는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을 대비해 한국에서 오랫동안 준비했고, 실전적인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평소대로 비행하자'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에어쇼보다 더 잘하겠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했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AF 이번 에어쇼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무엇입니까?

리아트와 판보로 에어쇼는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이 정해져 있으며, 구역별로 지켜야 할 고도가 다르고 진입 방향도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영국 에어쇼 규정에 맞게 우리 팀의 기동을 다소 수정하였고, 변경된 기동에 맞춰 훈련했습니다. 낮은 환경에서 치르게 될 평가 비행이 부담스러웠지만, 영국에서 제시한 규정을 준수하며 에어쇼를 수행하는 데 가장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10년 전 블랙이글스가 영국 에어쇼에 참가했을 때 촬영한 영상을 보며 기동을 분석하기도 하고, 모의비행 탑승장치에 영국 지도를 업데이트하여 현지 지형지물에 익숙해지기 위한 훈련도 했습니다.

AF T-50B가 갖는 특징과 장점은 무엇인가요?

T-50B는 항공기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및 조종계통이 매우 안정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블랙이글스 조종사들은 어려움 없이 낮은 고도에서도 가깝게 대형을 유지하며 비행할 수 있습니다. 또 항공역학적인 특성과 선회율이 좋아 여러 기동을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하늘로 솟구쳤다가 수직 강하하는 루프(Loop) 기동도 3,500ft(약 1km)의 수직 공간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항법 계통도 매우 뛰어나 원하는 시간에 정확한 지점으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T-50B의 뛰어난 항공역학적인 성능과 안정적인 계통으로 인해 블랙이글스가 저고도에서도 역동적인 기동을 선보일 수 있는 것이죠.





공희구 원사

AF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공희구 원사 저는 53전대 정비대대 공희구 원사입니다. 2009년 8월 블랙이글스에 합류하여 현재까지 약 13년간 근무하며 3대의 항공기 기장을 맡았고 이번 영국 에어쇼에 정비진행담당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AF 이번 에어쇼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했습니까?

저는 이번 영국 에어쇼 기간 동안 이뤄지는 모든 정비 작업의 일정 관리, 인원 및 현장 통제를 담당하여 정비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진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항공기 분해, 조립, 기능점검, 시험비행 지원, 에어쇼 참가, 복귀 등의 많은 정비업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했죠.

AF 10년 전에는 정비기장으로 영국 에어쇼에 참가했는데 당시와 비교했을 때 이번 에어쇼는 어떠셨나요?

10년 전 영국 에어쇼에 참가했을 때는 해외 에어쇼가 처음이라 많이 서툴기도 했고, 기장으로서는 맡은 항공기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에만 집중했다면, 이번 에어쇼는 정비진행담당으로 참가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았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의 무게 또한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중했습니다. 역할과 임무가 10년 전과 다른 점이 많았지만, 공군의 순수 기술력과 팀워크로 10년 전의 그 감동을 다시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었습니다.

AF 항공기 분해, 수송, 조립 등 이번 에어쇼에 참가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항공기를 분해하여 영국에 간다는 것이 결정됐을 때, ‘과연 가능할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전 에어쇼 참가 때와 달리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매일 수차례의 회의를 하면서 조금씩 답을 찾아갔고, ‘그래 한번 해보자’하는 다짐과 ‘우리 공군의 기술력으로 안 될 것이 있을까’하는 생각으로 분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분해 작업을 막힘없이 수행해나가며 상상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는 제1·8·16전투비행단 소속 정비사들로 이뤄진 분해조립팀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으로의 항공기 수송은 민간 업체와 공군의 합동으로 이루어졌는데, 항공기 포장에서부터 수송까지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영국 현지에서 항공기 9대를 조립하는 것은 제게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영국에서의 조립환경은 사전답사 때 잠시 봤던 것이 전부였기 때문이었죠. 6월부터 조립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분해조립팀은 마치 드림팀처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예비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 조립을 수행했고 계획했던 것보다 빠르게 완료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T-50B 분해



1 분해

제1·8·16전투비행단에서 모인 블랙이글스 분해조립팀 정비사들은 영국 에어쇼 참가를 위해 지난 5월부터 T-50B를 분해했다.



4 시험비행

보스콤브다운 기지 모든 유관부서장이 모여 시험비행 관련 회의를 진행한 후, 제52시험평가전대 조종사 배재진 소령, 정현석 대위가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부터 시험비행까지의 과정



2 운송

분해된 T-50B는 화물기에 선적되어 인천공항을 출발해 런던 스탠스테드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3 조립

영국 보스콤브다운 기지에서 블랙이글스 분해조립팀 정비사들은 분해된 T-50B를 재조립하며 우리 공군 정비 기술력을 한껏 뽐냈다.





블랙이글스 분해조립팀 조간상(좌), 손영인(우) 상사가 수직 꼬리날개 장착 보조작업을 하고 있다

AF 항공기 분해, 조립에는 얼마만큼의 시간과 인원이 투입됐습니까?

분해부터 조립까지의 전 과정은 시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공군의 여러 부서와 영국 에어쇼를 위해 모인 100여 명의 노력과 시간,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가족들은 준비는 그만하고 영국에 빨리 다녀오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웃음) 정비사 10명씩 총 3개 조를 이뤄 9대의 항공기를 분해, 조립했으며, 분해에는 4일, 조립에는 7~8일이 소요됐습니다. 당초 영국에서 항공기 조립 일정을 1대당 11일로 계획했었던 것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조립하는 우리 정비사들을 지켜본 영국 관계자들은 굉장히 놀라워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AF 항공기 분해, 조립 등 모든 절차를 우리 정비사들 손으로 했는데 이에 대한 소감도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무한한 가능성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도 좋지만,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아 뜻깊습니다.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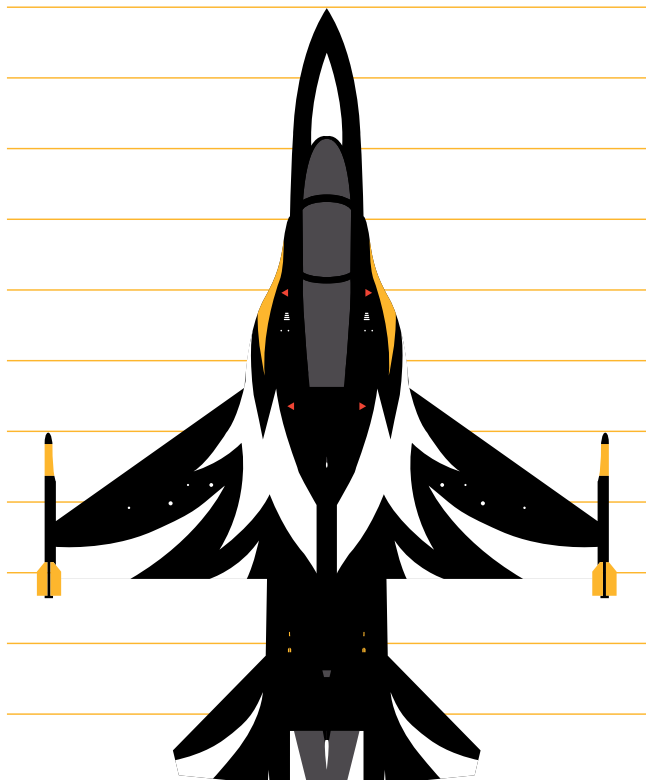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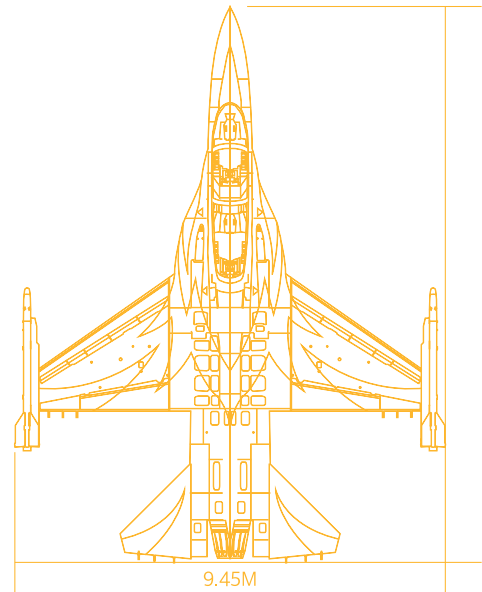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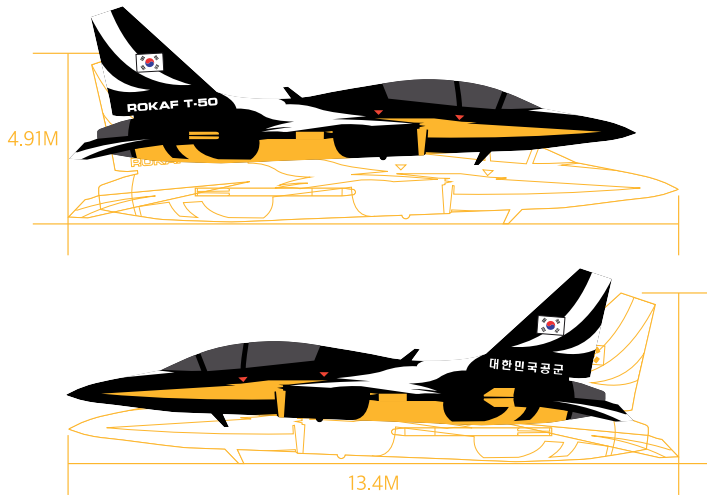
공군 정비 기술력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한편, 기술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 습니다. 블랙이글스가 세계 어디에서나 자신 있게 내보 일 수 있는 능력과 잠재력을 보여준 것이죠. 마치 꿈이 현실이 된 것처럼 조립된 항공기들이 성공적으로 첫 편 대비행을 마치고 주기장에 위치한 순간 눈물이 나서 감 출 수가 없었습니다.

AF 이번 에어쇼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무엇입니까?

한 치의 실수 없는 정비 진행입니다. 정비 진행에 실수가 없어야 일정을 맞출 수 있고 일정 관리는 곧 블랙이글스를 세계에 멋지게 보여줄 수 있다는 우리의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계획된 일정에 맞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고 여러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정비팀의 사기를 높여 정비업무에 전념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AF

T-50B

블랙이글스 항공기 제원



구분	T-50B
길이	13.4m
폭	9.45m
높이	4.91m
타입	초음속 항공기
제작국	대한민국
이륙중량	13,454kg
최대속도	마하 1.5(1,836km/h)



항공우주력 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다

미지의 세계, 하늘과 우주를 향한 인류의 관심은 먼 옛날부터 이어져 왔다. 과거부터 이어온 관심과 연구는 항공우주력을 지배하는 것이 패권을 쥐는 열쇠가 된 오늘날, 그 결실을 맺고 있다. 공군은 ‘항공우주력’의 중요성을 일찍이 이해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왔다. 공군 내부에서만 연구에 그치지 않고 민군협력을 통한 항공우주력 확보에 대한 공군의 의지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산업·학문·연구 분야의 자문을 토대로 기반을 다져왔던 것이다. 미래 국방환경에 대비해 그간 공군이 매진해 온 항공우주 분야 학술회의, 포럼 등의 배경과 추진현황을 살펴봤다.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1997년, 범국민적 항공우주 사상 고취 캠페인 추진의 일환으로 학술회의 개최가 발의됐다. 항공우주력 중심의 국방력 건설 논리를 공론화해 공군 정책을 대외에 홍보하고 항공우주력 확보에 대한 국민적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공군 전투발전단(現 항공우주전투발전단)은 연세대학교와 손을 잡았다. 연세대에서 회의를 주관하고 공군이 후원하는 방식으로 학술회의 개최 및 추진에 대한 합의를 한 것이다.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는 1998년 5월, “21세기 한국 공군의 역할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첫 문을 열었다. 총 3부로 나뉜 회의에서는 각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안보환경과 전략태세’, ‘21세기를 대비한 한국 군 구조 발전’, ‘동아시아의 공군력 분석과 한국의 적용’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당시에는 『항공력 국제학술회의』라는 명칭으로 개최되었으며, 2003년에는 『공



제22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당시 ‘대한민국 공군 창군 70년과 항공우주력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맨 왼쪽)와 패널들

군력 국제학술회의』로 명칭이 변경됐다. 공군이 항공우주군 육성의 원년으로 선포한 2008년부터는 항공우주력 건설 주체로서의 공군이 그 위상과 역량을 갖추려는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향후 공군력 건설의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해 학술회의 명칭을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로 변경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국제학술회의는 최초 발의 취지에 부응해 항공우주력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회의로 자리매김하여 총 23회째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 10월에 24번째 막이 열린다. 현재까지 개최 일자와 주제는 아래 표와 같다.

차수	개최 일자	주제
1	1998. 05. 22.~23.	21세기 한국 공군의 역할과 전망
2	1999. 06. 11.~12.	변화하는 동북아 전력구조와 한국의 우주항공력
3	2000. 08. 31.~09. 01.	21세기 분쟁환경과 한국군의 역할: 미래전, 전쟁관리 그리고 C4I
4	2001. 08. 31.	전략정보와 공중우세
5	2002. 11. 18.	동맹과 기동성, 전략적 항공력
6	2003. 11. 25.	신 국방정책과 공군력의 역할
7	2004. 09. 23.	협력적 자주국방과 군사력 건설방향
8	2005. 09. 08.	세계적 국방개혁 추세와 한국의 선택
9	2006. 11. 09.	국방개혁의 패러다임을 통한 항공우주력 건설
10	2007. 11. 15.~16.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국가안보를 위한 전력구조 발전방향
11	2008. 09. 23.~24.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항공우주정보력과 군 창조경영
12	2009. 06. 24.	한국 공군 창군 60주년과 새로운 60년을 향한 항공우주력 발전방향
13	2010. 07. 02.	6·25전쟁 60주년과 한국 공군의 미래
14	2011. 06. 28.	21세기 전략혁신과 공군의 역할
15	2012. 07. 05.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 공군 발전과제
16	2013. 09. 07.	항공우주력, 대한민국에 길을 묻다
17	2014. 07. 03.	지속가능한 항공우주력의 도약
18	2015. 07. 14.	창조경제와 항공우주력 건설-기회와 도전
19	2016. 06. 28.	한국의 지속가능한 항공우주전략 모색
20	2017. 11. 01.	한국의 국방개혁과 항공우주력 건설
21	2018. 06. 19.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항공우주력 건설
22	2019. 07. 02.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 항공우주력의 역할
23	2021. 07. 15.	대전환시기의 국방 우주력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대회

1980년 4월 처음으로 개최된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대회』는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선도국 도약을 위해 각 계각층의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항공우주력 발전과 전력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국내 최대 항공우주 분야 학술대회다. 공군은 2019년,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주안보 세션을 최초로 개최해 매년 두 차례씩 해당 세션을 주관하고 있다. 공군(항공우주 전투발전단)은 2020년 11월, 한국항공우주학회와 항공우주 분야 협력에 관한 합의를 체결했다.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대회』에서의 우주안보 세션 개최는 공군의 역할과 비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방 우주력 강화를 위해 각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는 기회로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군은 우주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분석해 우주 영역에서의 주 임무군으로 거듭날 것이다.



공군우주센터가 개최한 2022 한국항공우주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주안보 세션에서 서현우 소령이 'KPS(Korean Positioning System,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공군 협업방안'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제1회 민·군 우주발전 세미나에서 '공군 우주 감시·정찰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최성한 당시 중령(現 우주센터장)

우주력에 대한 공군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등 국민 공감대를 제고했으며, 국내 우주분야 기술동향과 발전추세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후 『민·군 우주발전 세미나』는 『열린 우주 포럼』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올해 11월, 열린 우주 포럼은 다시 단독으로 개최되어 민·관·군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열린 우주 포럼

2019년, 공군은 우주력 발전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우주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군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과 공동으로 『제1회 민·군 우주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민·군 우주발전 세미나』는 국가 우주개발 추진을 목표로 정부 기관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민·관·군 교류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공군과 우주 유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 국방



Aerospace Conference 2021 당시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Aerospace Conference

공군의 미래 항공우주력 발전을 위해 민·관·군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폭넓은 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기존에 실시해왔던 항공우주 분야 세미나, 포럼을 통합한 『Aerospace Conference』가 2020년 처음 계획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되는 시기였던 만큼 공군-국민대 UAS(Unmanned Aircraft System, 무인항공기시스템) 발전 세미나, 민군협력 소요 발전 세미나, 항공우주무기체계 발전 세미나, 열린 우주 포럼을 통합해 운영하려 했던 『Aerospace Conference 2020』은 아쉽게 취소되고 말았다.

가운데 『Aerospace Conference 2021』은 ‘항공우주력 발전을 위한 민·관·군 협력과 상생도약’을 주제로 개최됐다. 『Aerospace Conference 2022』는 올해 9월, ‘미래 전장을 주도하기 위한 항공우주무기체계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계획이다. 앞으로도 『Aerospace Conference』는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항공우주력 건설에 민·관·군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네트워크를 강화해 각 분야별 소요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는 개최 취지에 맞게 이어질 것이다.

이 밖에도 공군은 항공우주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우주·미사일 방어전략 포럼』, 『공군-한국국제정치학회 간 공동 세미나』, 『국제 전자전 콘퍼런스』 등의 자리를 마련해 민·관·군이 끊임없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얻은 항공우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군은 미래 항공우주력을 선도하는 핵심으로 도약할 것이다. AF



Aerospace Conference 2021 당시 한국국방연구원(KIDA) 소속 박용진 공군 중령이 ‘자율화 수준에 따른 저비용 무인기의 적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공대지미사일 Part II

공대함 미사일

1982년 5월 4일, 영국군에 대항하기 위해 출격한 아르헨티나 해군의 슈페르 에팡다르(Super Etendards) 공격기 2대는 파도에 스칠 듯이 초저고도를 비행하고 있었다. 영국 군함을 약 25마일(약 40km) 앞두고 공격기는 표적을 식별하기 위해 고도를 150m 정도 상승시켰다. 레이더를 통해 중형, 대형 크기의 해상 표적을 식별한 조종사는 표적데이터를 입력하고, 탑재된 프랑스제 엑조세 대함미사일을 발사했다. 약 2분이 지난 후 미사일은 표적에 명중했고, 결과는 공대함 미사일에 의한 최초 격침사례로 전사에 기록되었다.

1982년 당시 아르헨티나 해군 엑조세 미사일의 표적이 된 함정은 영국 해군의 셰필드(Sheffield) 구축함이었다. 셰필드는 영국 항공모함 인빈서블의 15마일(약 24km) 외곽에서 대공방어를 담당하고 있었다. 항공모함 인빈서블은 공격기가 상승했을 때 이를 레이더로 포착하고 구축함 셰필드에 정보를 제공했으나, 해면 3m의 고도를 음속의 속도로 돌진하는 엑조세 미사일을 셰필드가 탐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순식간의 상황에 속수무책이었던 셰필드는 날아오는 두 발의 미사일 중 한 발에 선체 중앙부가 피격되고 말았다. 피격 충격과 화재에 의해 셰필드의 주요 장비는 기능을 멈추었고, 군함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셰필드는 피격 4시간 만에 결국 침몰하고 말았다.



AM39 엑조세 미사일

건조비가 약 5,000만 달러에 달했던 신형 구축함이 단가 20만 달러(1982년 기준)에 불과했던 엑조세 미사일 단 한 발에 격침된 사건은 군 관계자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후 각국은 해상 방공과 대함미사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공대함 미사일은 항공기에서 발사되는 대함미사일을 말한다. 구조적인 면에서 공대함 미사일은 지표나 수중에서 발사되는 대함미사일과 비교하여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지표와 수중에서 발사되는 대함미사일은 발사 플랫폼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미사일의 초기 가속을 위한 부스터가 필요하다. 또한 어뢰관과 발사기 공간이 협소하여 미사일의 날개가 접히는 구조로 설계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공대함 미사일은 항공기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부스터가 필요 없고, 날개도 고정형이어서 구조와 중량 면에서 간소화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대함 미사일로는 하푼, 엑조세, AGM-158C, 시 이글, 코모란, 시 스쿠아, 가브리엘, ASM-2, 러시아가 개발한 Kh-31, 모스키프, 야혼트/브라모스, 그리고 한국이 개발한 해성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서방측 미사일은 속도가 아음속인 반면 러시아 미사일은 초음속이다.

최근의 공대함 미사일은 초음속 성능과 더불어 스텔스 성능이 강조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개발한 JSM(Joint Strike Missile, NSM 대함미사일의 공대함형) 공대함 미사일은 최대속도가 아음속이지만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어 함정의 대응이 곤란한 미사일이다. JSM은 F-35에도 통합되기 때문에 F-35의 스텔스 성능을 이용하면 적 함정에 대해 더욱 은밀한 공격이 가능해질 것이다.

대레이다 미사일

1991년 걸프전의 서막은 다국적군의 대공제압으로 시작됐다. SEAD(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s, 대공제압)은 적의 방공레이다, 대공포, 지대공미사일과 같은 지상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임무로 아축 항공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전과 동시에 가장 먼저 이루어진다.

대공제압은 제압하는 수단에 따라 전자적으로 적의 방공망을 방해하는 소프트킬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하드킬로 구분할 수 있다. 대공제압 임무에서 하드킬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이번에 소개할 대레이다 미사일이다.

대레이다 미사일은 적 레이다의 전파를 역추적하여 레이다를 파괴시키는 미사일이다. 기본적인 유도원리가 적으로부터 방사되는 전파를 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레이다 미사일은 대방사 미사일(Anti Radiation Missile)이라고도 불린다.

최초의 대레이다 미사일은 베트남전에서 사용된 AGM-45 쉬라이크 미사일이다. AGM-45 쉬라이크는 비록 사정거리가 10여 km에 불과하여 운용에 제약이 많았지만 1973년에 이스라엘군이 중동전에도 사용하여 많은 전과를 기록했다.

서방측의 최신 대레이다 미사일은 AGM-88 HARM(High-speed Anti-Radiation Missile, 고속 대방사 미사일)이다. HARM은 최대사거리가 80km에 달해 원거리에서 운용이 가능하고, 최대속도 향상으로 대공제압 효과를 증대시켰다.



AGM-45 쉬라이크 미사일



AGM-88 HARM

HARM 외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레이다 미사일은 낙하산이 내장되어 표적 지역에 체공이 가능한 영국의 ALARM(Air Launched Anti-Radiation Missile, 공중발사 대방사 미사일), 프랑스의 ARMAT, 러시아의 AS-11/-12/-17 미사일 등이 있다. Kh-31P로도 알려진 러시아의 AS-17은 마하 3(3,672km/h)의 속도로 순항이 가능하다.

지상의 방공레이다측은 대레이다 미사일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다 작동을 중지하는 전술을 사용한다. 레이다 작동이 중단되면 대레이다 미사일은 표적을 잃어버리게 되어 유도가 중지된다. 방공 레이다와 대레이다 미사일의 쫓고 쫓기는 경쟁은 베트남전부터 최근의 전쟁까지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레이더의 작동중지만으로 대레이다 미사일을 회피할 수는 없게 될 전망이다. 레이다가 작동을 멈추어도 전파 발신원의 위치를 기억하고, 표적을 능동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이중유도 방식의 대레이다 미사일이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AGM-88E AARGM

AGM-88E AARGM(Advanced Anti-Radiation Guided Missile, 첨단 대방사 유도 미사일)은 이러한 이중유도방식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대레이다 미사일이다. AGM-88E는 GPS/관성항법장치를 내장하고 있어 미사일 발사 후 표적레이다 위치와 미사일 위치를 정밀하게 기억할 수 있다. 또한 유도 종말단계에서 밀리미터파 탐색기로 표적을 상세하게 식별할 수 있어 선별적인 정밀타격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극초음속 공대지미사일

극초음속은 마하 5(6,120km/h) 이상의 속도를 의미한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체를 가속하는 수단으로는 로켓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로켓은 추진 성능이 우수하지만 추진제와 산화제를 비행체에 함께 탑재해야 하기에 비행체 공간과 항속 효율 측면에서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로켓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극초음속 공기흡입식 추진시스템이다. 극초음속 공기흡입식 추진시스템은 로켓에 있던 산화제가 없다. 대기 중의 공기를 산화제로 이용하기 때문에 로켓보다 공간과 효율 측면에서 성능이 우수하다. 다만 공기를 흡입해야 하기 때문에 우주까지 비행은 불가능하다.

극초음속 공기흡입식 추진시스템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엔진 방식은 SCRamjet(Supersonic Combustion Ramjet, 스크램제트)엔진이다. 스크램제트 엔진의 구성과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램제트(Ramjet) 엔진을 이해해야 한다. 터보엔진은 공기흡입구로부터 유입된 공기를 회전식 압축기를 사용하여 압축 후 연소시켜 터빈과 노즐을 통해 연소가스를 분사한다. 램제트 엔진은 터보엔진의 회전식 압축기와 같은 압축기가 없다. 대신, 공기의 압축 성질과 고속으로 유입되는 공기가 흡입구 형상의 충격파로 인해 압축되는 램 압축 현상을 이용해 운동에너지를 압력에너지로 변화시킨다. 흡입구 형상과 면적변화로 압력이 상승된 공기는 연소실에서 마하 1(1,224km/h)이 안 되는 아음속 상태에서 연소되고, 노즐 목이 좁아졌다가 넓어지는 축소-확대 형상의 노즐을 통해 마하 1이 넘는 초음속으로 노즐을 빠져나오게 된다.

아음속 연소를 위한 램제트 엔진의 흡입구 형상과 충격파는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에서 오히려 높은 압력 손실과 과도한 온도 상승을 가져와 에너지 손실이 커진다. 이러한 손실을 막고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연소실 내에서도 초음속으로 공기를 연소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와 같이 엔진 전체의 유동을 초음속으로 계속 유지시키면서 공기를 연소시키는 방식의 엔진을 스크램제트 엔진이라 한다. 스크램제트 엔진은 초음속의 공기와 연료를 매우 짧은 시간에 혼합하면서 연소시켜야 하기에 화염 안정화, 연소, 열관리 관련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램제트/스크램제트 엔진은 비행체 자체 속도로 흡입공기를 압축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마하 2~3(2,448km/h~3,672km/h)의 속도까지는 다른 수단으로 가속해야만 한다. 따라서 로켓 또는 터빈 엔진을 추가하여 두 가지 이상의 모드로 작동되는 복합사이클 방식의 엔진이 필수적이다.

극초음속 비행체를 구현하기 위한 추진기술로는 앞서 살펴본 공기흡입식 추진시스템 외에 부스트활공형 방식도 사용된다. 대륙간탄도탄과 유사한 부스트활공형 방식은 비행체가 상승 후 탄도 궤도로 하강하는 것이 아니라 탄두에서 비행체가 분리되어 표적까지 활공비행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부스트활공형은 대형 발사체로 비행체를 가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주로 폭격기에서 운용될 것이며, 공기흡입식 추진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소형화가 가능하여 전투기용 극초음속 공대지미사일의 주요 추진방식으로 사용될 것이다.



HALO 개념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먼저 전력화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진행한 다수의 극초음속 미사일 프로그램 중에서 공중발사형으로 대표적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HAWC(Hypersonic Air-breathing Weapon Concept, 극초음속 공기흡입식 무기 개념), AGM-183 ARRW(Air-launched Rapid Response Weapon, 공중발사 신속대응 무기), HACM(Hypersonic Attack Cruise Missile, 극초음속 공격 순항 미사일), HALO(Hypersonic Air-Launched OASuW-2 capability, 극초음속 공중발사 공세적 공대함 능력II)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미 공군이 국방고등연구기획국과 협력하여 개발 중인 HAWC는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노스롭그루먼이 경쟁 중이다. 미 공군은 HAWC 프로그램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2027년까지 HACM 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이다.

AGM-183 ARRW는 2020년대 초 전력화를 목표로 록히드마틴이 2018년부터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AGM-183은 부스트활공형 미사일이며, 크기가 대형이기 때문에 F-15 또는 B-52 등 폭격기에서 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HALO는 기존의 AGM-158C 장거리대함미사일의 후속으로 미 해군이 2028년까지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이다. 운용기종으로는 F/A-18E/F를 고려하고 있으며, 대형이기 때문에 F-35C 내부무기고 운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B-52에 탑재된 AGM-183A ARRW



MiG-31에 탑재된 킨잘

러시아는 공중발사 극초음속 미사일로 Kh-47M2 킨잘(Kinzhal)을 전력화시켰다.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을 개조한 킨잘은 대형 요격기인 MiG-31에 탑재되어 대함 또는 대지상 공격에 사용된다. 해상 발사형인 3M22 지르콘(Zircon) 극초음속 미사일은 향후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PAK-DA 등에서 운용하기 위해 공중발사형으로 개조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공중발사 극초음속 미사일로 H-6N 폭격기에 대함탄도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DF-21D 대함탄도미사일을 개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은 탄두에 DF-17 극초음속 비행체를 탑재할 가능성이 있다.

영국과 프랑스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하푼과 엑조세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2011년부터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페르세우스(Perseus)로 명명된 이 미사일은 스텔스 성능까지 갖추게 될 것이며, 2030년경 전력화가 예상된다.

극초음속 비행체는 마하 5 이상의 빠른 속도 때문에 긴급표적 대응에 효과적이고, 기존 방공체계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 전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은 항공기에 탑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미 운용하거나 개발하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점진적으로 소형화되고 있어 향후 전투기의 주요 무장의 하나로 발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군도 보다 관심을 기울여 전력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AF



글쓴이 임상민 박사(『전투기의 이해』 저자)

한국항공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KAI),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연구 및 개발을 맡았으며, 현재는 방위사업청 항공분야 전문관으로 항공 무기 획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투기의 이해』, 『항공기 체계효과도의 이해』 등 8권 저술, 1993년부터 항공/군사지, 항공/군사학회 등에 수백여 편의 원고 및 논문을 기고했다.

무에서 유로

장창(長槍) -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전우를 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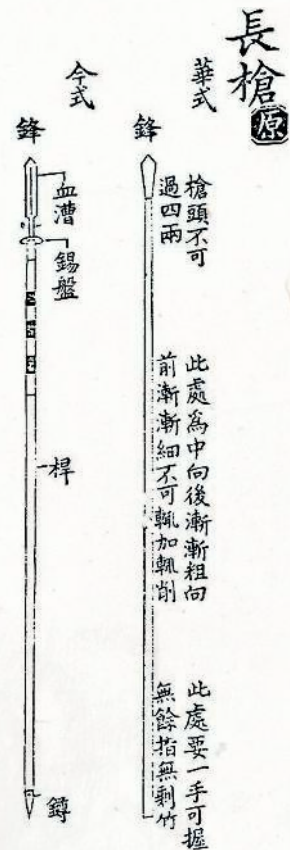


글쓴이 소개 『무예도보통지』에 담긴 무예24기를 28년 동안 한결 같이 수련하였으며, 무예를 통해 역사를 추적하고 있다. 수원시립공연단 무예24기시범단 상임연출로 활동하고 있다. 『정역 무예도보통지-정조, 무예와 통하다』, 『조선후기 무예사 연구』, 『병서, 조선을 말하다』, 『조선의 무인은 어떻게 싸웠을까?』 등 10여 권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이 있다.

장창부대는 바람에 일렁이는 숲이다. 장창수들이 어깨를 맞대고 수백, 아니 수천 명이 여러 겹으로 도열하여 적을 향해 창날을 겨누면 거대한 가시나무 숲이 된다. 제아무리 철갑을 두른 기병들도 그곳을 뚫고 지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장창은 길어서 개인이 빠르게 통제하기가 어려웠다. 오직 나와 함께 목숨을 걸고 전장을 지키고 있는 전우를 믿고 사력을 다해 창날이 꺾이지 않도록 버텨내는 것이 장창의 핵심 전술이고, 모든 것이었다.

장창의 길이는 1장(丈) 5척(尺)이다. 요즘 척도로 환산하면 약 4m 60cm가 넘는 엄청난 길이다. 심지어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6m에 육박하는 장창을 특성화시켜 보병의 주력 무기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익히 들었던 고대 그리스의 전술인 팔랑크스(Φάλαγγα, Phalanx)도 전형적인 장창 밀집 보병대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신라군의 경우 장창당(長槍幢)이라는 이름의 단독부대로 명성을 날렸다. 신라의 중앙군은 크게 국왕 호위와 왕궁을 방어하는 시위부(侍衛府)와 수도방어와 치안을 담당했던 아홉 개의 부대로 나뉘었다. 그것이 구서당(九誓幢) 체계였다. 바로 이 구서당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장창의 그림으로, 조선의 방식인 금식(今式)과 중국의 방식인 화식(華式)

중 한 개의 단독 부대명이 장창을 전문적으로 훈련하고 전술로 활용하는 '장창당'이었다. 고구려와 백제의 기병을 상대하기 위해 만든 신라군의 특수병종이었다.

서기 675년, 당나라 20만 대군과 접전을 치른 매소성 전투에서 신라 장창부대의 활약은 두드러졌다. 특히 석궁과 유사한 기계식 활인 노를 이용하는 부대인 노당(弩幢)과 함께 짝을 이뤄 당나라 선봉 기병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였다. 장창으로 적의 진입을 차단하고, 노를 이용하여 화살을 쏘아 당 기병을 말에서 쓰러뜨렸다. 이듬해 신라는 기벌포 해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당나라 세력을 완전히 몰아냈다.

서양 전쟁사에서도 팔랑크스 이후 장창으로 이름을 떨친 부대가 있다. 바로 스위스 장창부대다. 15~16세기 유럽의 전술환경 자체를 뒤집어 엮을 만큼 파급력이 커서 중장기병의 몰락과 보병체제 부활의 신호탄 역할을 한 부대였다. 알프스 산악지방의 스위스 군사들은 원래 칼과 도끼, 짧은 창을 가지고 싸웠다. 그런데 철갑과 긴 랜스(Lance)로 무장한 오스트리아 기병대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스위스군은 병력을 300명 단위로 나누고 핵심병력이 5m 이상의 장창으로 무장한 밀집장창부대 전술을 고안하였다. 특히 사다리꼴 모양의 독특한 대형전개를 통해 측면과 후방까지 적절히 방어하는 전술을 완성하며 유럽의 전장을 뒤흔들었다. 이후 중세 유럽 전쟁사의 획을 그었던 100년 전쟁·장미전쟁·이탈리아 전쟁 등에서 용병으로 참전하여 스위스 장창보병의 위력은 각인되었다.

그런데 밀집 장창보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인한 믿음이었다. 전선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 용기와 철저한 훈련을 통해 다듬어진 정밀한 자세 유지였다. 스위스 군사는 척박한 산악지방의 한계를 강인한 훈련을 통해 극복했다. 바로 전투현장에서 절대 후퇴는 없으며, 오직 어깨를 맞댄 전우를 믿고 목숨 바쳐서 전열을 사수하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삼았다. 1527년 5월 6일, 수십 배나 많은 신성 로마제국 군대와 맞서 로마 교황청을 마지막까지 사수한 부대는 오직 스위스 근위대뿐이었다.



무예24기 시범단의 장창 열진 모습

특히 1792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 궁전이 시민군에 의해 습격당하자, 프랑스 근위병들은 모두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기 바빴다. 그러나 함께 근무하던 스위스 용병들은 단 한 명도 전장을 이탈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궁전을 사수했다. 그리고 전멸하였다. 이런 '절대적 충성심'을 이유로 지금까지도 로마 교황청을 수호하는 친위대는 스위스 근위병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스위스 파이크(Pike)병, 장창보병은 유럽전쟁의 전설이 되었고, 스위스 근위병 충성 서약식은 지금도 매년 5월 6일에 로마 바티칸 궁에서 공식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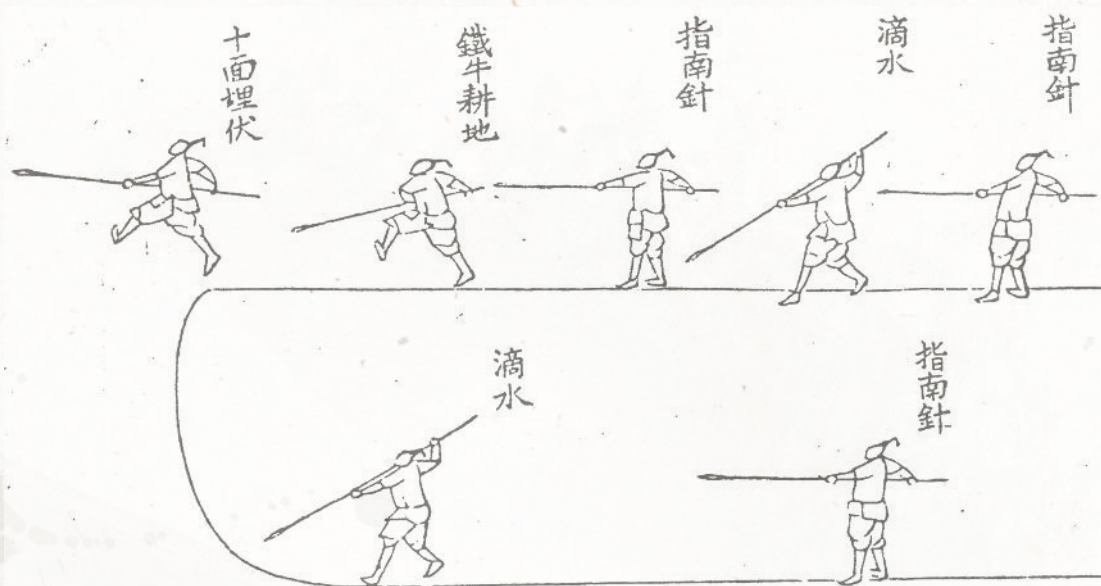
조선군도 조선 초기 왜구와의 전투에서 성벽 가까이 접근하는 적에 대항하는 최소단위 전술로 장창병 1인, 방패병 1인, 궁시병 1인이 한 조가 되어 방어하는 독특한 수성(守城)전술을 구사하기도 하였다. 성벽 위에서 안정적으로 활을 쏠 수 있도록 궁시병을 보호하며 접근하는 적들을 장창과 방패병이 막아내는 전술방식이었다.

특히 임진왜란을 거치며 조선군은 장창전술을 뼈저리게 체감하였다. 일본군의 왜검과 장창 그리고 조총을 함께 활용하는 독특한 전술체계를 제대로 방어해내지 못하다가 초반에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일본군은 작은 깃발을 활용한 부대가 상대의 시선을 혼란시키면 그 사이로 조총수들이 연속 발포하고, 적의 진영이 붕괴되면 도검과 장창을 가진 군사들이 돌격하여 마무리하는 전술체계였다. 그것이 일본군이 활용한 ‘삼첩진(三疊陣)’이었다.

당시 조선군은 기병을 중심으로 한 북방 기동군 전술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일본군의 조총을 가미한 근접전투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임진왜란 초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국왕이 있던 수도까지 빼앗기게 된 것이다. 생소한 적의 전술을 빠르게 이해해야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일본군의 단병 접전술을 극복하기 위하여 조선군도 장창을 훈련시켜 보급해야만 했다. 조선군 장교들이 직접 구원군으로 조선에 파견된 명나라군 막사에 찾아가 장창의 핵심 기법을 조금씩 익혀 나갔다. 조선군이 수련한 장창은 명나라 군사들에게 배운 전보(前譜) 12세와, 조선군이 새롭게 정리한 후보(後譜) 12세로 모두 24세의 자세를 훈련하였다.

장창의 핵심 자세는 먼저 ‘태산압란세(太山壓卵勢)’와 ‘미인인침세(美人認針勢)’라고 하여 장창을 높이 들었다가 적을 향해 창을 겨누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앞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적수세(適水勢)’와 ‘지남침세(指南針勢)’를 반복하는데, 이 자세는 긴 창을 창날을 위아래로 흔들며 적의 진입을 막는 자세였다. 이렇게 창날을 위아래로 흔들며 이동하면 상대 기병이 탄 전투마의 시선을 교란할 수도 있으며, 칼을 비롯한 짧은 무기 등 상대 보병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바로 이어 뒤로 물러설 때도 마치 규격화된 움직임처럼 적수세와 지남침세를 반복하며 열을 맞춰 뒤로 물러가는 자세를 훈련하였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단 한번 낮고 깊게 찌르는 ‘십면매복세(十面埋伏勢)’로 적 보병의 진입을 차단하는 방식이었다.



장창 훈련 모습을 담은 <장창총도>



기병의 몸통이나 전투마의 목을 정면으로 찌르는 기룡세(騎龍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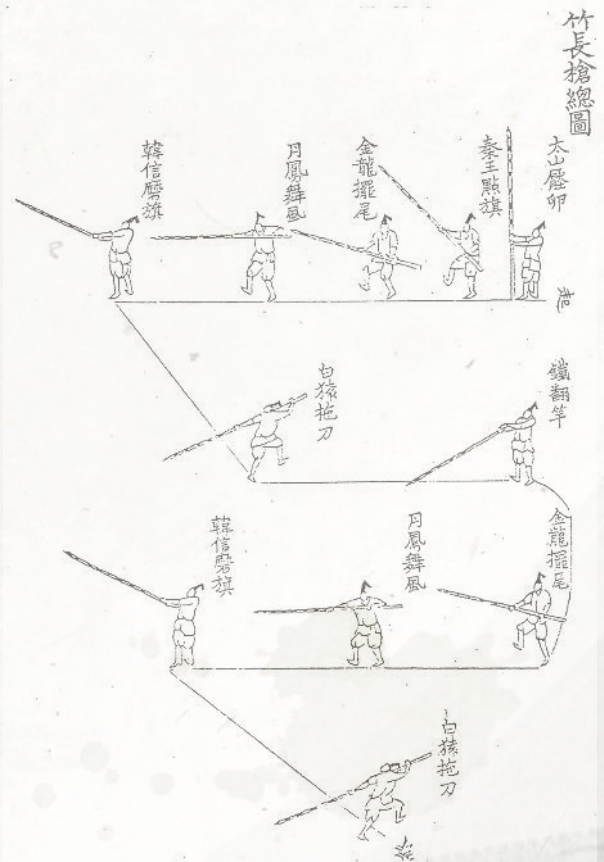
대 기병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돌격해 들어오는 선봉 기병을 막아내지 못하면 아군의 전열은 붕괴되고, 바로 이어 상대 보병이 천천히 압박해 오면 그 전투는 이미 끝난 것이다. 그래서 장창의 주재료는 쉽게 부러지지 않는 주목이나 나무를 여러 겹 덧댄 합목을 사용하였다. 장창의 허리 부분이 부러지면 더 이상 장창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고 긴 주목을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 대체재로 선택된 것이 대나무인데, 비록 속이 비어 있어 견고함은 부족하지만, 물량을 빠르게 생산하여 전장에 보급하기에는 효과적이었다. 그것이 죽장창(竹長槍)이다. 죽장창의 핵심 자세를 살펴보면, 창을 높이 들었다가 앞을 향해 세 번 연속으로 내려치는 ‘진왕점기세(秦王點旗勢)’와 왼편과 오른편을 향해 창날을 세 번 연속으로 둥글게 돌리며 상대 기병이 탄 전투마의 시선을 교란시키는 ‘금룡과미세(金龍擺尾勢)’와 ‘단봉무풍세(丹鳳舞風勢)’가 대표적이다.

장창은 결코 혼자 살아남을 수 없었다. 수백 수천의 전우들이 열을 지어 어깨를 맞대고 서로 믿고 의지할 때 무적의 가시나무 숲과 같은 장창진법이 완성되었던 것이다. 전투현장에서 믿어야 할 것은 자기 손에 쥐어진 병기와 자신과 함께 전장을 지키는 전우들이다. 절대적인 믿음이 충성심으로 이어져야만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전우와 조국을 지킬 수 있다. AF

거기에 상대방의 병기를 사선 방향으로 눌러 막는 자세인 ‘변란세(邊攔勢)’와 함께 빠르게 몸을 회전시키며 회피하고 물러서는 ‘백원타도세(白猿拖刀勢)’가 독특한 장창 방어술이다. 그리고 빠른 회피기동 후에는 반드시 말을 탄 기병의 몸통이나 전투마의 목을 향해 정면으로 찌르듯 겨냥하는 ‘기룡세(騎龍勢)’를 취하게 된다.

보통 창을 훈련하는 자세 명칭에서 상대방을 ‘용(龍)’으로 쓸 경우는 주로 상



죽장창의 연결 훈련 모습을 담은 <죽장창총도>

제40화 박영관 이발사

LIVE PAGE

내 옆의 공군인 _____

공군이라는 이름으로 지낸
땀과 열정의 시간들
우리들의 영웅
내 옆의 공군인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이발소에서 공군 장병들의 군인다운 단정한 용모를 책임지고 있는 이발사 박영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장병 머리를 손질한 지도 벌써 3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실 이발 기술을 배워 사람들의 머리를 잘라주기 시작한 건 그보다도 한참 전입니다. 부족한 기술이지만 사람들의 머리를 깔끔하게 다듬어주는 것이 좋았던 저는 오래전부터 한 마을을 찾아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이발 봉사를 해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제 꾸준한 봉사를 알아봐 준 한 기업에서 저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안겨 주었습니다. 월간 『공군』을 사랑하시는 장병과 군무원, 그리고 여러 독자님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뜻깊군요. 부족한 말솜씨이지만 마지막까지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배운 이발



제가 이발을 시작하게 된 건 아주 어렸을 때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어렸지만 일을 해야 했기에 여러 일을 하던 중 한 식당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주 못된 사장을 만나고 말았죠. 당시 저와 같이 일을 하는 아이들에게 버럭 화를 내는가 하면 별안간 손찌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무섭고 겁이 나서 도저히 일을 못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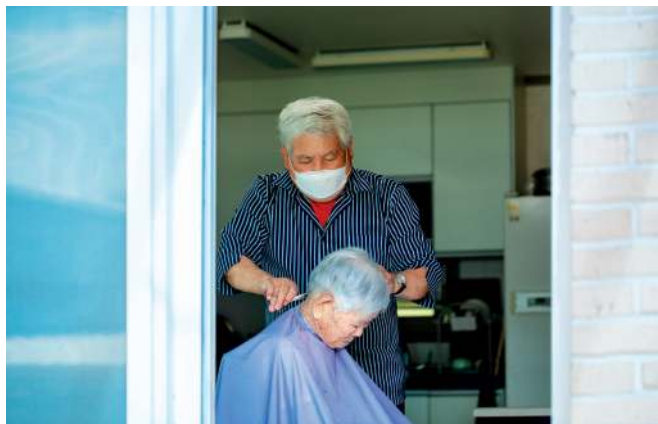
겠더라고요. 그 식당에서 입으라고 건네준 유니폼을 포장도 뜯지 않은 채로 두고 한밤중에 냅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렇게 다른 일들을 하다 2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제 친구의 형님이 대구광역시 비산동에서 이발소를 하고 계셨어요. 그 형님은 일을 찾던 저에게 이발을 배워볼 것을 권유해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해오던 저는 그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발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배우면 손님들 머리를 자를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이발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7년에서 8년 동안은 이발소 내의 잡일들을 돕는가 하면 손님 머리카락에 손을 댈 수 있는 순간은 머리를 감겨드리는 때 뿐이었습니다. 형님이 이발하시는 것을 어깨너머로만 봐 오던 저는 일을 시작한 지 10년 가까이 되어서야 드디어 가위를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다른 이발소들을 돌아가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매우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밥벌이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떨 때는 어릴 적 만난 못된 사장처럼 저를 때리는 상사도 있었을 정도여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기술을 배워야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모욕적인 언행을 다 참아가면서 끈질기게 배우곤 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겠다는 다짐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조금씩 이발 실력을 쌓아오던 1970년대 어느 날,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이발소를 개업하게 됐습니다.

이발 봉사의 시작

그때 당시 대구 MBC 뒷골목에서 제 이발소를 개업했습니다. 이발소를 개업하니 그동안의 고생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뿌듯하기도 하고 말 못 할 정도로 기뻐했죠. 당시 주변에 있던 이발소 업주들이 ‘양지봉사회’라는 봉사단체를 꾸려 노인과 고아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저도 힘을 보태자는 생각에 양지봉사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양지봉사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대구 SOS(Save Our Souls) 어린이 마을이라는 아동복지 시설을 찾아가 아이들 머리를 자주 잘라주곤 했습니다. 다른 이발사도 많았지만, 아이들은 자꾸만 제 앞에 줄을 섰습니다. ‘다른 아저씨 앞으로 가’라며 아이들을 보내려고 했지만 돌아오는 건 ‘아저씨가 잘라주신 머리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라는 명랑한 아이들의 대답이었죠.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주변에서 동료들이 제 이마에 난 땀을 닦아주면서까지 최대한 많은 아이들의 머리를 다듬어 줬습니다. 가끔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이나 다과를 사서 물품을 지원해주기도 했어요. 그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하기도 하면서 보고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988년 어느 날, 경찰이
 있던 친구 집이 있는 경상
 북도 의성군 춘산면 금오
 리에 놀러 갔었습니다. 산
 간오지에 있는 한 작은 마
 을이었는데 그곳에 사시
 는 노인분들의 머리가 텅
 수룩해 보기 좋지 않았습
 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주변에 이발소가 없는 것
 은 물론이고, 5,000원이
 라는 이발료가 부담스러
 워 노인들이 머리를 자르
 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거
 동이 불편하고 자식들 키
 우느라 돈을 아껴가며 본



박영관 이발사의 기사가 실린 1994년 8월 29일자 국민일보

인 머리도 자르지 않는 노인분들이 한편으로는 안쓰러워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크게 들었습니다. 이후 별것 아닌 제 조그마한 기술을 그분들께 쓰기 시작했죠. 매주 금오리 마을을 찾아 한 분 한 분 머리를 다듬어 드리며 말끔해진 모습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을 돌다가도 머리가 지저분한 노인을 보면 멈춰서서 ‘어르신! 머리 자르고 가세요!’라며 먼저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마을을 찾을 때면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하루에 약 50명 정도 이발해주곤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찾아 봉사하다 보니 어느새 가족처럼 저를 아껴주시는 노인들을 보면서 피곤해도 봉사를 이어가게 되더라고요. 세월이 세월이다 보니 안타깝게도 제게 이발을 받던 노인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편찮으셨던 분들이 다음에 찾아갔을 때 돌아가시고 안 계실 때 그렇게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봉사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에 옆 마을인 가음면 면장에게 문의해 현재는 경북 의성군 가음면 이1리에서 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영관 이발사의 이발도구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봉사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내의 힘이 컸습니다. 아내가 제 활동을 항상 응원해 주고 운전도 대신 해주기 때문에 편하게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말만 되면 저보다도 먼저 봉사 갈 준비를 마치고 갑니다. 아내와 함께 여행가는 마음으로 마을을 찾아 노인들의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이발도 해드리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에요.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봉사하다 보니 언제 이렇게 시간이 훌쩍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직장, 공군

개업한 이발소를 접고 다른 이발소에서 줄곧 일을 하다가 한 지인이 부대 이발소에 들어오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11전투비행단(이하 '11전비')에서 이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군무원으로 일을 시작해 병사 이발소에서 10년, 부사관 이발소에서 4년 정도 근무했고 이후 장교 이발소에서 여러 해를 보냈습니다. 약 29년간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근무 기간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년 퇴임을 하고 한 4개월 정도 집에서 쉬고 있던 어느 날, 11전비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계

약직으로 근무하던 직원 한 명이 손을 다쳐 일손이 필요하다는 전화였습니다. 운명이겠거니 하고 다시 돌아가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11전비에서 근무하는 동안 부대의 속 깊은 배려를 받아왔습니다. 제가 아직 운전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발 봉사를 갈 때마다 매번 부대 동료의 도움으로 가곤 했는데 2011년, 당시 11전비 단장이셨던 이견완 장군께서 제 소식을 들으셨는지 차량과 운전병을 지원해주셔서 덕분에 편하게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부대에서 이1리 마을 주민들을 초대해 부대 견학을 시켜주고 점심을 대접해줬습니다. 덕분에 제 어깨가 좀 올라가기도 했었죠.(웃음)



11전비를 견학한 경북 의성군 가음면 이1리 마을 주민들 (2015년)

보이스 피싱으로 오해한 상(賞)



신한금융그룹으로부터 수여 받은 희망영웅상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한 직원이 면사무소에서 낸 홍보기사를 보고 '희망영웅상' 수상자에 선정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포상금을 준다길래 새로운 형태의 보이스 피싱인 줄 알고 군사경찰에 신고까지 했었죠. 한 3일 정도 내내 전화가 왔지만 믿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알고 보니 전화가 온 곳은 신한금융그룹이었고 전화를 한 직원들이 신분증을 보내주고 나서야 믿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도 하지 못한 일이라 어안이 병병했지만, '영웅'이라는 호칭 하나로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고 그동안의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과 함께 받은 포상금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수건도 돌리고 고기도 먹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받을 수 없었을 상이었으니까요.(웃음)

칼끔해진 모습의 머리가 마음에 들어하시는 노인들을 볼 때마다 제가 하는 이 일의 만족도가 높아 지곤 합니다. 주변에서 저에게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는 제 아내가 있죠. 그런 응원들이 제가 봉사 활동을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곤 합니다. 아내와 함께 건강하게 오래 봉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삶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제 몸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저는 이곳을 찾아 노인들의 머리를 다듬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아름다운 경북 의성군 가음면으로 놀러 오세요! (AF)

공내다: 공군이 내놓은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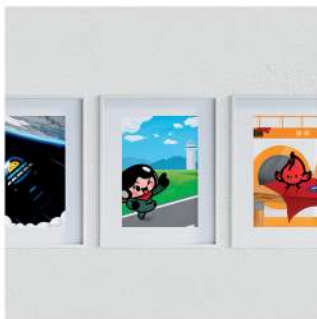


공군이 내놓은 디자인은
공군의 이야기와 철학을 국민들께
재미있게 전달하는 디자인 브랜드입니다.

공군이 만든 디자인을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아
본인의 스타일로 수정하고
도안을 다운받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공군이 내놓은 디자인(www.afplay2.tistor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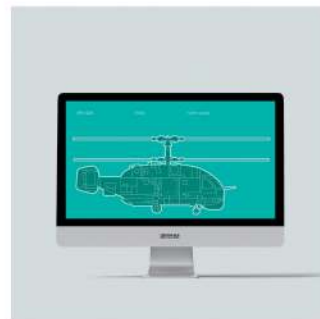
매주 업데이트 되는 공군 디자인 굿즈들을 바로 만나보세요



[하늘이 프렌즈] 포스터
하늘이 프렌즈가 포스터 속으로!



[공군 전용서체] 노트
공군의 전용서체가 담긴 노트 디자인



[공항라일] PC 배경화면
다양한 항공기가 PC 배경화면으로!



[하늘이 프렌즈] 폰케이스
하늘이 프렌즈가 폰케이스로!

블랙이글스 영국 에어쇼 참가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10년 만에 영국 에어쇼에 참가해 우리 공군과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







KF-21 보라매 첫 시험비행 성공

7월 19일(화) 16시 13분,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의 첫 시험비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앞으로 약 2천여 회에 달하는 비행시험을 통해 비행영역을 확장하고 각종 성능 및 공대공 무장 적합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F-35A 한미 연합비행훈련

7월 11일(월)부터 14일(목)까지 한미 양국 편대장이 리더를 바꿔가며
이끈 F-35A 편대가 국내 임무공역에서 연합 비행을 실시했다.





리아트(RIAT) 현장 방문

정상화 참모총장은 7월 15일(금), 영국 페어포드 공군기지에서 열린 리아트(Royal International Air Tattoo, RIAT)에 참석하여 환상적인 공연을 선보이며 우리 공군과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린 블랙이글스 조종사와 정비사 등 임무요원들을 격려하고 에어쇼를 관람한 영국 교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영국 군사외교 주요 지휘관 양자대담



정상화 참모총장은 7. 15.(금) 영국 페어포드 공군기지에서 코너 앤토니 칸라스 필리핀 공군사령관, 케네스 월즈바흐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 스테판 밀 프랑스 항공우주군 참모총장, 마이크 위그스톤 영국 공군참모총장, 찰스 브라운 미국 공군참모총장, 존 레이몬드 미국 우주군참모총장, 로버트 칩먼 호주 공군참모총장과 차례로 양자대담을 갖고, 대한민국 공군과 각국 공군 및 항공우주군 간 군사교류협력 발전 방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세계 항공우주 지휘관 회의



정상화 참모총장은 7월 13일(수)부터 14일(목)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세계 항공우주지휘관 회의에 참석했다. 참모총장은 찰스 브라운 미국 공군참모총장, 존 레이몬드 미국 우주군참모총장, 마이크 위그스톤 영국 공군참모총장, 폴 갓프리 영국 우주사령관, 로버트 칩먼 호주 공군참모총장, 스테판 밀 프랑스 항공우주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항공우주지휘관들을 만나 급변하는 국제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4차 산업혁명과 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전쟁 수행 방식 변화와 방위산업의 전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참모총장은 세계 항공우주지휘관들과 함께 '국제기후변화 협력서명식'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참모총장은 세계 항공우주지휘관 회의에 앞서 한국전 참전비를 방문하여 헌화와 참배를 하고, 영국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했다.



공군사관학교

2022년 하계군사훈련

공군사관학교는 6월 21일(화)부터 7월 15일(금)까지 4주간 사관생도의 지상, 해양, 공중 생존 능력 함양을 위해 2022년 하계군사훈련에 돌입했다. 사관생도들은 강인한 체력과 담력 배양을 위한 유격 훈련은 물론, 수중 생존을 위한 수영법 반복 숙달, 공중 환경 적응을 위한 패러글라이딩 이·착륙훈련 등 실전적 훈련을 통해 정예 공군 장교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과정을 체험했다.



교육사령부

공군 병 제838기 수료식

교육사령부는 7월 1일(금), 대연병장에서 공군 병 제838기 수료식을 실시했다. 초청 내빈과 훈련병 가족 총 3,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수료식에서는 1,800여 명의 정예 공군 병사가 탄생했다. 이들은 각자 부여받은 특기 교육을 마치는 대로 공군 각 부대에서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제5공중기동비행단

2022 SUMMER CONCERT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7월 5일(화), 2022년 전반기 동안 공중기동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장병과 군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2 SUMMER CONCERT를 개최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실시된 행사에는 공군군악대와 함께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스트리트 댄스팀 등이 출연해 화려한 공연을 펼쳤다.



*조종사의 날(매년 7월 3일)은 6·25전쟁 중이던 1950년 7월 3일, F-51 무스탕 전투기의 역사적인 첫 출격을 기념하고 선배 조종사들의 투혼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8년에 제정됐다.



제8전투비행단

조종사의 날 맞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추모행사

제8전투비행단은 7월 1일(금), 조종사의 날을 맞아 기지 내 블랙이글 참전비에서 순직 장병과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추모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서 비행단 지휘관·참모를 비롯한 모든 조종사들은 묵념과 헌화를 하고 위국헌신의 결의를 다짐하는 등 전투조종사로서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제10전투비행단

한미 연합 피해복구 종합훈련

제10전투비행단은 7월 4일(월)부터 7월 8일(금)까지 한미 연합 피해복구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공동작전운영기지에 대량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공병, EOD(Explosive Ordnance Disposal, 폭발물처리), 소방, 화생방 분야 전시 임무 절차를 숙달하고 한미 연합 피해복구 요원들의 임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제20전투비행단

집중호우 피해 농가 복구 지원

제20전투비행단은 7월 1일(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농가 지역을 찾아가 응급복구 대민 지원을 실시했다. 때 이른 무더위와 장맛비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지역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장병들은 막힌 배수로를 정비하고 토사를 제거하며 값진 구슬땀을 흘렸다.

한 달, 한 권



디즈니만이 하는 것

기온이 아무리 높아도 습도가 낮으면 뒤틀 없는 사람 대하듯 그런대로 지낼만한데, 높은 기온에 습도까지 높으면 불쾌지수가 자꾸 높아집니다. 이럴 때 좋은 방법은 그저 한 번 웃는 게 아닐까 합니다. 얼마 전 뜨거운 관심 속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여주인공이 그러죠. 하루 5분만 숨통이 트여도 살만 하다고요. 웃는 얼굴로, 하루 5분씩만 더 자신과 동료에게 숨통을 틔워 주면 어떨까 해요.

이 달에 추천하는 책은 밥 아이거의 『디즈니만이 하는 것』입니다. 제목을 보면 디즈니의 창의성을 말하는 책인가 싶지만, 아닙니다. 미디어 환경의 급변으로 쇠락했던 디즈니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의 디즈니 제국으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리더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동료와 파트너에게 어떻게 신뢰를 얻어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전하는 책입니다.

디즈니는 시가 총액 300조 원의 세계 1위 미디어 그룹입니다. 2019년 전 세계 흥행 Top 10 중 일곱 편이 디즈니 작품이었고 『어벤저스: 엔드게임』과 『겨울왕국2』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무려 11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OTT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는 오픈 첫날에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했어요.

디즈니는 1923년에 창업했으니 내년이면 100주년을 맞습니다. 부침이 매우 심한 기업의 세계에서 이토록 긴 시간 살아남아 세계 정상을 지키는 기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디즈니가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올드 미디어가 쇠락하고 모바일이 부상하자 한동안 내리막을 걸어요. 그렇다면 디즈니는 어떻게 했길래 부활할 수 있었을까요? 마법이라도 부린 걸까요? 그 중심에 이 책의 저자, 밥 아이거가 있었습니다.

밥 아이거는 1951년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노동자 집안의 장남으로 어렵게 대학을 졸업한 그는 지역 케이블 방송국에서 기상 캐스터로 일을 시작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ABC 방송국에 들어가게 됐고 처음엔 드라마 제작부의 말단 연출 보조로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놀랍게도 41세에 ABC의 사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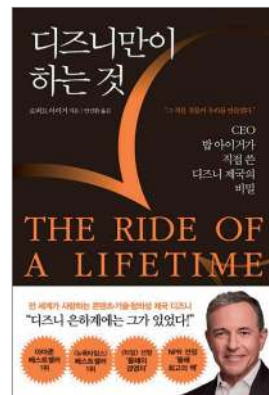
됩니다. 그는 할리우드 스타일을 전혀 모르는 양복쟁이 관리자였지만 당시 공중파 방송사들이 도전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으로 화제작을 만들어 ABC를 시청률 1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곤 ABC가 디즈니에 인수되고 몇 년 후 마침내 디즈니의 CEO에 오르죠.

이런 개인사도 흥미진진합니다만, CEO가 되기로 결심한 후 이사진에게 자신을 어필해 결국 CEO로 낙점받는 대목,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픽사와 루카스 필름을 인수하는 얘기가 아주 감동적입니다. 합병 발표 30분을 앞두고 스티브 잡스가 같이 걷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신이 췌장암이라고, 고약한 놈이라 치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그러니 지금이라도 인수 합병을 없던 일로 취소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픽사 인수는 스티브 잡스가 없다면 크게 의미를 갖기 어려운 프로젝트였어요.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아이거는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리곤 잡스가 세상을 뜰 때까지 4년을 서로 존중하며 친구처럼 지냅니다.

밥 아이거는 경영자입니다. 자신이 창작자는 아니에요. 함께 일한 구성원들과 한마음이 되지 않았다면 뛰어난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을 겁니다. 게다가 그가 상대하고 설득해야 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까다롭고 예민하며 콧대 높은 크리에이티브였고 ‘방송쟁이’들이었습니다. 그는 스티브 잡스나 조지 루카스 같은 크리에이티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는데, 그건 단순히 테크닉이 아니었습니다.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였어요. 그렇다고 한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지 루카스는 합병 후에도 자신이 전권을 갖기를 원했지만 아이거는 처음부터 그건 불가하다고 못 박아요.

그렇다면 밥 아이거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개성이 강한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며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는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약속을 지킨다,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믿어도 된다. 결국 상대의 마음과 신뢰를 얻었던 거죠.

물론, 밥 아이거는 디즈니 CEO를 맡아 회사를 어디로 이끌지 그림을 명확하게 그렸고, 구성원들에게 이를 소상히 밝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래야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고품질의 콘텐츠와 신기술, 그리고 글로벌 기업. 그는 이 세 가지를 디즈니가 바라보고 나아갈 북극성으로 정하고 그 방향을 일관되게 밀고 나간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하지만 경영은 사람과 하는 일이며 내부 직원이나, 파트너, 혹은 경쟁자와의 관계도 결국은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함께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신뢰를 얻는 것이야말로 여럿이 함께하는 일에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영과 리더십, 사람 사이의 소통과 신뢰의 중요성을 두루 배울 수 있는 좋은 책이란 생각에 추천합니다. 찬찬히 읽으면서 무더위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AF**



『디즈니만이 하는 것』
밥 아이거 지음
샘앤파커스 펴냄



글쓴이

광고회사, 제일기획에서 카피라이터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29년간 일했고 2016년부터 서울 강남에 ‘최인아책방’을 열어 책방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책만 파는 서점이 아니라 일하는 분들에게 해법을 드리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을 추천하거나 큐레이션 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명상을
말하다



보는 것과 아는 것

여러분은 예술품과 음란물 사이의 구별기준으로 미국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미국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보면 그냥 안다(I know it when I see it).”입니다. 누구든지 참으로 수궁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 예술품이나 음란물에만 국한된 것이겠습니까?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물 또는 사건을 보고 난 후에야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이제 저는 “보면 그냥 안다.”라는 위 문구가 명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숙고해서 여러분에게 말해 보려고 합니다.

“보면 그냥 안다.”

첫째, 무엇인가를 먼저 보아야만 그 이후에 그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대상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사건이든, 그것을 살펴본 이후에야만 그것을 제대로 알게 되겠지요.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는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살펴본 적이 없으면 서도 그것에 대해 전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대상을 제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판단을 내리기 전에 제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잘못 알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일이 훨씬 줄어들겠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대로 본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본다는 건 말 자체로 거기에 나의 선입견이나 생각을 투영하지 않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뜻합니다. 혹시 거기에 나의 견해를 투영하고 싶더라도 이 단계에서는 자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린 마음 자세이지요. 누구든지 무엇인가를 볼 때는 모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고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사건이든 그것을 볼 때 나의 선입견이나 생각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나요? 결

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마음챙김 명상이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둘째, 보는 것(seeing)과 아는 것(knowing)은 전혀 다른 과정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보는 것이 앞서고 아는 것은 그 뒤를 따릅니다. 볼 때는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라고 했습니다만, 알 때는 ‘바르게’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할 때는 거기에 나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미하면 안 되지만, ‘바르게’ 알 때는 오히려 내가 학교와 사회에서 ‘바르다’라고 배워왔던 지식과 가르침을 동원해서 과연 나와 사회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비추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나의 지혜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알아내어 타당한 것은 추구하고, 부당한 것이라면 따라가지 않도록 구별해야 하는 겁니다. 이럴 때만 우리는 나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준비를 마칠 수 있겠지요.

명상은 아무런 지식도 없이 무작정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게 보이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아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배워서 익히는 것도 명상의 중요한 일부라고 할 수 있지요.

셋째, 보고, 알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행동할지 판단해서 그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보고 아는 단계까지는 수동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보고 안 것을 토대로 거기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단계는 능동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명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세상을 보고,

알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전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자신과 사회의 발전에 실제로 기여하는 단계는 바로 이 반응하고 행동하는 단계라고 할 것이고, 보고 아는 단계는 이 반응과 행동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겠지요.

“명상은 현실로 뛰어드는 일입니다.”

흔히 명상을 현실로부터 자신만의 세계로 도피해서 개인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매우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행위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시다시피, 명상은 보고 아는 준비단계를 거쳐서 반응하고 행동하는 적극적인 행위단계를 모두 포함하여 그 전부를 개선하려는 매우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런 이유로 명상은 절대로 현실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챙김 명상을 통하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바르게’ 알며, ‘지금 해야만 할 일을 망설이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보고, 알고, 행동하는 세 가지 단계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각각의 자세들이 서로 다른 만큼 우선 보고, 알고, 행동하는 세 가지 단계를 확실히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 합당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지금보다 더 훌륭한 인간이 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균형 잡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AF



글쓴이

검사 출신 변호사. 약 30년 전 마음챙김 명상을 만나 업무와 대인관계에 큰 도움을 받았다. 10년 전부터 신세계 아카데미, 삼성 레포트 문화센터, 인터넷 방송 등에서 명상을 전파하고 있다.

영화로운 나날



관람이 아닌 체험의 영화 『탑건: 매버릭』

넷플릭스만 있다면 거실에서 드러누운 채 영화를 볼 수 있는 세상인데, 왜 사람들은 굳이 영화관에 가서 수고롭게 영화를 볼까? 사람들이 영화관을 찾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나의 경우 어떤 영화를 2시간 동안 집중해서 보고 싶을 때 혹은 캐러멜 팝콘이 먹고 싶을 때 영화관을 찾는다. 요즘에는 아이맥스나 4DX 등 화려한 스크린 기술이 접목된 영화관에서 ‘관람’이 아닌 ‘체험’의 경험을 하기 위해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2013년 영화 『그래비티』가 마치 우주유영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을 관객들에게 선사했을 때 영화 평론가 이동진은 “어떤 영화는 관람이 아니라 체험된다. 경이롭다.”는 한 줄 평을 남기기도 했다.

2022년 여름 현재 가장 화제작인 『탑건: 매버릭』(이하 『탑건』)은 ‘체험’이라는 목적에 딱 부합하는 영화다. 코로나19 이후로 이렇게 단기간에 사람들이 극장에 가득 들어차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다. 『탑건』을 보고 영화관 문을 나서는 사람들의 감상평은 대체로 이렇다. “그동안 CG(컴퓨터그래픽)가 떡칠 된 마블 영화에 내가 얼마나 질렸었는지 알겠다.” 130분 러닝타임 내내 관객들은 유사비행을 경험한다. 의자는 고정돼있지만 사운드의 진동감과 화면의 질감을 통해 마치 조종석에 앉아 중력가속도를 견디는 기분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대체 『탑건』은 다른 영화들과 무엇이 다르기에 이런 체험감을 선사하는 것일까. 우선 『탑건』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주연배우인 톰 크루즈를 빼놓을 수 없다. 톰 크루즈는 1986년 개봉한 『탑건』 오리지널의 주연배우로 단번에 할리우드에서 톱스타 반열에 올랐다. 이후 36년 만에 같은 시리즈의 주연을 맡았다. 이번 후속편은 원래 2012년쯤 제작이 시작됐는데, 당시 감독을 맡기로 했던 토니 스콧 감독이 사망하면서 10년간량 제작과 개봉에 난항을 겪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톰 크루즈는 곳곳하게 주연배우의 자리를 지키며 영화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다.

톰 크루즈는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집착에 가까운 장
인정신을 발휘했다. 그는 스텐트 대역이나 CG 없는
촬영을 고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아직 개봉하지 않
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촬영 당
시 톰 크루즈는 58세의 나이에 불구하고 온갖 액션
신을 몸으로 받아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오토바이
를 타고 계곡으로 도약한 후 낙하산을 사용해 착륙하
는 장면을 헬멧도 쓰지 않고 직접 연기했을 정도다.
『탑건』에서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들에게까
지 ‘No CG’ 원칙을 적용했다.

이번 영화에서 제작진은 전문가와 상의해 배우들을
위한 4개월짜리 훈련과정을 만들었는데, 톰 크루즈는
누구보다도 훈련과정 설계에 열심이었다고 한다. 영
화 촬영에는 F/A-18E/F 슈퍼 호넷이라는 전투기가 사
용됐다. 배우들이 이 전투기를 한 번에 탈 수는 없었
으므로 훈련은 ‘순한 맛’으로 시작했다.

『탑건』의 항공 코디네이터이자 비행 스텐트 파일럿인
케빈 라로사의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첫 훈련은 세
스나(Cessna) 172라는 경비행기로 시작했다. 배우들
은 하루 두 번 이 경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것에
대한 감부터 익혔다. 그 다음으로는 엑스트라(Extra)
EA-300이라는 독일의 2인승 프로펠러 비행기로 옮겨
탔다. 이 비행기를 타고 곡예비행을 하면서 약한 정도
의 중력가속도에 익숙해졌다. 그렇게 1~2개월 적응을
한 후에 배우들은 미국으로 수입된 체코슬로바키아
전투기인 L-39 Albatross를 타기 시작했다. 조종사들
이 느낄 수 있는 중력가속도를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
작한 것은 이때부터다. 이 과정을 거치고서야 배우들
은 영화에 나오는 F/A-18E/F 전투기로 옮겨탈 수 있
었다.

『탑건』에서 배우들이 중력가속도를 느끼며 날아다니
는 장면 대부분은 실제 비행을 하면서 촬영된 것이다.
전투기 조종석에는 6대의 카메라가 설치됐다. 배우들
은 한 번 비행 시 최대 90분의 제한시간을 두고 하루
에도 여러 번 하늘을 날았다. 전투기를 대여해 준 미
해군의 규정 때문에 직접 조종을 하지는 않았고, 조종
사 뒤에 앉았다. 규정도 규정이지만 미 해군에서 전투
기 한 대당 한 시간에 1만 1374달러의 대여료를 받고
대여를 해줬기 때문에, 직접 조종하는 것은 무리였을
것이다.

이 밖에도 배우들은 실제 항공기 조종사들이 받는 수
중훈련을 받았다. 또 해변에서의 노출신을 위한 고강
도 헬스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한다. 톰 크루즈는 자신
이 설계한 이 극한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수행하면
서 실제로 너무 힘들어서 구토를 했다고 말했다.

『탑건』은 이렇게까지 CG 없는 촬영을 통해 완성됐다.
영화의 흥행은 결국 톰 크루즈가 구현하고자 했던 아
날로그의 세계에 관객들도 공명했다는 것을 보여준
다. 영화 속에서 매버릭은 무인 드론으로 파일럿을 대
체하려는 상사에게 “아직은 아니다(Not today)”라고
말한다. AI가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다지만 아직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진정성은 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
이다. **AF**



영화 『탑건: 매버릭』



글쓴이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입니다. 2011년부터 기자일을 시작해 사건·사고, 금융, 보건복지 등 여러 분야를 맡아 글을
썼습니다. 지금은 문화부에서 영화와 관련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클래식 톡톡



중세의 슈퍼스타 아이돌, 카스트라토

지난 회차에선 기악곡을 다루어 보았다. 이번에는 성악곡을, 그중에서도 카스트라토와 카운터 테너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서양음악에서 성악곡은 의외로 종교, 특히 기독교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다. 기록으로 남은 가장 오래된 악보는 고대 그리스의 세이킬로스의 비문(Epitaph of Seikilos)이지만 실용적인 의미로 쓰인 악보는 중세시대 교회에서 사용하던 악보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같은 성역에 따른 용어 분류도 이때 나온다. 알다시피 여성 고음(소프라노) 여성 저음(알토), 남성 고음(테너), 남성 저음(베이스)으로 나뉘고, 각 영역마다 중간영역으로 소프라노와 알토의 중간에 메조소프라노, 그리고 테너와 베이스 중간에 바리톤이 있다.

중세 교회음악의 또 하나의 특기할 만한 점은 성별의 차별성이었다. 현대에도 논란이 많은 고린도전서 14장 34~35절에서 사도 바울의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문구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했지만, 결국 이 때문에 여성은 교회에서 노래를 부를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교회 예배음악에서 쓰이는 유일한 음악은 수도사들의 남성합창이었다. 그러나 합창에서 꼭 필요한 멜로디의 높은 음역대를 담당할 파트가 필요한데, 보이 소프라노로 불리던 어린 남자아이들이 높은 소리를 맡았다. 생각해 보자. 아무리 두껍고 중후한 목소리의 성우나 배우라도 어릴 땐 목소리가 다른 아이들과 똑같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이전까지는 녹음을 해보면 남자아이의 노래소리와 여자아이의 노래소리를 구분하기 힘들다.

그러나 남성들이 2차 성징기가 되면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왕성히 분비되면서 체모가 두꺼워지는 동시에 성대가 길어지고 두꺼워진다. 남자들은 목소리가 굵어지면서 고음이 쉽게 나지 않게 되고, 음색 자체도 톤이 어두워진다. 합창 악보를 보면 베이스 파트들은 한 옥타브 아래인 낮은음자리표로 표기하는데, 그

건 실제로 남자 목소리가 한 옥타브가 낮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간단히 테스트해 볼 수 있다. 흔히 오케스트라가 튜닝할 때 쓰는 피아노의 가운데 ‘라(A4)’ 음을 여자가 내면 440Hz인데, 같은 음을 남자가 내면 한 옥타브 아래인 220Hz가 찍힐 것이다.

그런 이유로 보이 소프라노들은 변성기가 찾아오면 때아닌 정년퇴임을 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결국 찾아낸 방법이 변성기 이전의 소년들을 거세해서 높은 음역대의 소리를 유지하는 방법이었는데 이게 의외의 결과를 낳았다. 변성기 이전의 높은 고음을 낼 수 있는 음역대를 갖고 있는 데다 호흡의 양과 체격은 성인 남자의 동체를 사용한 파워풀한 발성이 가능한 미소년, 어릴 때부터 다져진 기량이 성인까지 이어진 커리어로 연결되는 솔리스트, 그렇게 음악계의 슈퍼스타가 출현하게 되었다. 그리고 곧 현대의 아이돌에 적용되는 스타시스템이 작용하기 시작했다.

성악곡의 화려한 기교는 여기에서 출발한다. 카스트라토들의 전성기인 17~18세기의 곡들은 엄청난 초절기교 곡들이 많다. 고음도 많고 화려한 장식음들에, 긴 호흡으로 처리해야 하는 악절까지. 이 시대 곡들이 가장 성악적인 난이도가 높고 화려하다. 작곡가들은 여성의 성대에 남성의 악기통과 성량을 지닌 카스트라토들이기에,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듯 초절기교 곡들을 써댔고 카스트라토들은 이걸 또 소화해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이 일단 결혼하지도 않는 데다 변성기 이전부터 기숙 생활만 하며 연습만 하는 생활을 어릴 때부터 유지했기 때문에 매일의 연습량도 엄청났다. 성공한 카스트라토들은 어지간한 풋내기 작곡가들보

다도 더 음악적인 역량과 구력을 뽐냈고, 그래서 종종 신인 작곡가들의 신곡들을 ‘지적질’ 해가며 맘대로 고쳐 부를 수도 있었다. 나중에는 고쳐 부르는 것도 모자라, 신작 오페라의 대표 아리아가 맘에 들지 않으면, 성공한 다른 작곡가의 오페라 작품 아리아로 교체해서 부르기까지 했다. 그래서 안 되었지만 그렇게 해도 막강한 티켓파워가 있기에 가능한 얘기였다.

19세기 나폴레옹 시대에 이르러 금지될 때까지 카스트라토들은 음악계의 슈퍼스타로 군림했다. 간혹 남성이 여성적 발성을 내는 모든 것을 총칭해서 카스트라토와 카운터 테너를 헛갈리는 사람도 있다. 카스트라토와 카운터 테너는 음역부터 소리 질감까지 완전히 다르다. 카운터 테너는 가성을 흉성 공간으로 증폭시켜 고음을 내지만 기계적인 수치상으로 한 옥타브가 낮다. 그리고 고음의 음색 밀도도 두성과 흉성이 주어 되어 소프라노의 고음과는 차이를 보인다. 카스트라토는 말 그대로 여성의 성대에 남성의 파워시스템을 가졌기에 여성의 목소리 그대로에 남성의 흉성의 저주파 영역과 음색이 섞여서 놀랄 만큼 치밀한 고음과 강렬한 음색을 가졌을 것이라고 상상된다. 음원 자료가 없기에 단지 상상에 맡겨야 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전설적인 카스트라토였던 카를로 브로스키를 다룬 영화 ‘파리넬리’에서는 카운터 테너와 메조소프라노의 목소리를 합성해서 사용했다.

남성과 여성, 그리고 고음과 저음의 기막힌 하이브리드 타입, 카스트라토의 노랫소리는 그렇게 전설적인, 그러나 그 누구도 기록하지 못한 소리가 되어버렸다. **AF**



글쓴이

목원대 교수, 오페라 가수

TREND

트 렌 드 가 보 인 다

해시태그가 주는 우리의 요즘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인스타그램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해시태그로 하고 싶은 말들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 뒤에 무언가를 붙이면 자연스럽게 검색 기능이 형성되는 레이아웃이 완성되면서 우리는 메인 내용에 이어 붙이게 되는 자연스러운 부수적인 말들로 해시태그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검색의 범주에 들 수 있도록 하는 적당한 해시태그는 계정을 활성화하기도 해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검색 기능으로의 해시태그

#서울데이트코스 #서울카페 #강남카페. 해시태그는 이렇게 자신이 검색하고자 하는 부분을 모아 볼 수 있는 기능으로 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능으로도 작용하기도 하고 새로운 브랜드들은 고객을 유입하기 위해 해시태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광고도 존재하지만, 사람들은 검색하고자 하는 것을 해시태그로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사진을 통해 그 형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서 인지

의 차원으로 검색엔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검색 기능으로의 해시태그는 관계의 새로운 연결 및 새로운 광고 채널로도 활용됐습니다. 혹시나 관심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게시물에 반드시 해시태그를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증 기능으로의 해시태그

자신만의 해시태그로 자신의 글을 모아서 보기도 합니다. 필자도 나만의 해시태그인 ‘#여행_(이름)’을 통해 인증하곤 합니다.

신 자유주의가 만들어가는 개인의 경쟁력이 문화 자본주의와 만나서 다양한 형태의 ‘인증의 시대’ 문화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대두된 인증 기능의 해시태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갓생의 삶!

MZ 세대가 호들갑스럽게 무언가를 표현할 때 쓰는 ‘갓(God)’과 ‘인생’을 합쳐 만든 신조어로, 부지런한 삶을 의미합니다. 무언가에 과몰입하는 것을 잠

시 멈추고, 본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쓰입니다. 지금은 생산적이면서 계획적이고 바른 생활을 부르는 범위로 확장되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목표지향적인 루틴을 세워서 행동할 때 ‘갯생산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코로나 시대 이후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염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가장 달라진 점은 그 어느 때보다 집에 오래 머물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기업 채용 일정이 변동되며 언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을지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런 흐트러진 일상을 정돈하며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해 소소한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갯생’이 대두된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실천하면서 계획을 이뤄가는 것이 하루를 잘 보내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MZ 세대에게는 소확성(소소하고 확실한 성공)과 루틴(반복적인 형태)이 관심 키워드인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갯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좋은 문화의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오운완, #오하운 하고 있니?

‘오늘 운동 완료’ 이자 ‘오늘 하루 운동’의 줄임말로, 운동 기록을 인증하는 해시태그입니다. 요즘 세대 사람들은 모두가 ‘갯생’의 완성은 기록이

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기록용 계정을 별도 운영해 포트폴리오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꾸준한 공부나 운동을 기록하면서 자기관리를 해온 과정으로 나중에 자신을 표현할 수 있기에 핵심 해시태그로 쓰면서 자신만의 해시태그를 더하기도 합니다. 의지가 조금 부족하다면 ‘챌린저스’ 등의 습관 형성 플랫폼을 이용해 계획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MZ 세대 사이에서는 건강을 관리한다는 것은 나를 위한 ‘투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치 스펙을 쌓듯, 건강관리를 기록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MZ 세대의 72.2%는 건강관리를 자기개발로 여긴다고 답했습니다. 운동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 자체가 ‘힙하다’고 하면서 #오운완 해시태그는 184만 개의 게시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더불어 퍼스널 헬스케어와 함께 대두되었죠.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게으르고 안 좋게 보는 시각이 대두되면서, 스스로에게 약속하듯이 쓰는 이 해시태그는 사람들의 습관 성형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늘 #오운완 하고 계신가요?

#바디프로필

부지런한 삶을 사는 요즘 세대들이 많이들 도전하는 것이 바로 #바디프

로필 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좀 더 재미있게 운동을 할 수 있는 ‘함께하는 운동’, 그리고 ‘함께하는 스포츠 크루’들이 활성화되었고, 아름다운 몸을 만들어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운동선수들만 자신의 몸을 기록했다면, 이제는 일반인도 도전하면서 성취감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다양한 콘셉트의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가 성행하게 되었고, 침체된 사진 시장에 새로운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스튜디오를 예약하는 것은 3개월 이상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MZ 세대는 나만의 아름다움을 완성하여 그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도 짜릿하게 느끼고 행동합니다. 물론 다른 세대들도 헬스케어에 눈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버킷리스트가 #바디프로필 이라고 할 만큼 달라진 요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해시태그 중에서도 헬스케어에 집중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트렌드의 흐름을 읽다 보면, 저 또한 자극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해시태그에 관심 갖고 계신가요? 이왕이면, 함께 건강해지는 과정과 결과물을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쓴이

교육 브랜딩 전문 ‘헤이데이 컴퍼니’를 운영하며, 영화 『로맨틱 헤븐』 타이틀 작업, 루미나 컬러테라피 전문가 과정 수료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 그림

글 | 유주원 상병(제1전투비행단 수송대대)

그림 | 강은정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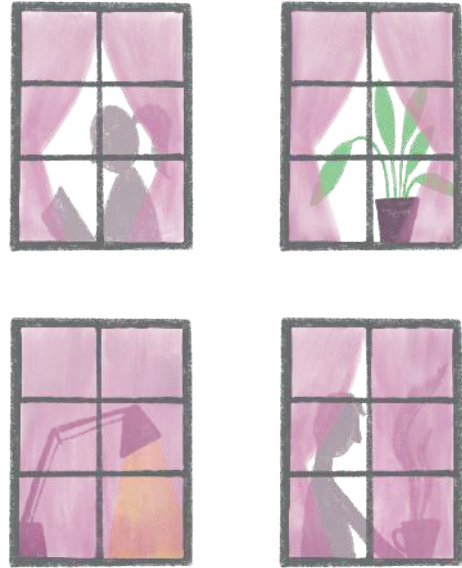
이웃사촌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 우리 말로 ‘오는 것이 있어야 가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는 오늘날 상호 간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처럼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아무 조건 없이 주지만 하는 사람은 ‘호구’라 말하고, 그저 받기만 하는 사람은 ‘암체’ 같다고 비난하죠. 이러한 사고방식 속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는 딱딱한 계산이 이뤄지는 교환이자, 피곤한 일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딱 받은 만큼만 주고, 나에게 돌아올 이득이 없을 것 같다면, 애초에 관계를 맺지 않거나, 베풀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죠.



기브 앤 테이크 문화가 예전부터 있었던 문화는 아닙니다. 선조들은 이웃 간에 힘든 일이 있거나 도울 일이 생기면, 앞뒤 가리지 않고 힘을 모았습니다. 지역 이웃 간의 공동체 모임인 두레와 품앗이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을 구성원 한 명의 일은 마을 전체의 일이었고, 손을 빌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 피로 이어진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바로 ‘이웃사촌’입니다. 비록 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사촌만큼 가까운 사이라고 말이죠. 관계에는 그만큼의 신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교류하는 것이 일상이었기에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고 조건 없는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완전히 옛말이 되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 어쩌다 마주치면 인사도 하지 않고 데면데면 지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동료에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죠. 서로 간의 신뢰는 사라지고 계산적인 관계 속에서 그저 머리만 굴리고 있을 뿐입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기보다 조건적인 행동과 대화만이 우리 관계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공군인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 동안 동료에게 시선을 돌리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나요?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 자신만을 바라본 채 움직이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서로를 믿고 움직일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신뢰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상호 계약 하에 맺어진 신뢰가 아닌 진짜 신뢰가 말이죠. 먼저 다가가 대화를 시작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기억해주세요. 조금씩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이웃사촌처럼 따뜻한 이웃이 우리 옆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나를 믿고 나 또한 내 옆에 있는 동료를 믿을 수 있는 따뜻한 공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F

현대사회에서의 상실(喪失)에 대한 단상(斷想)

글 | 대위 이민섭(제15특수임무비행단 항공의무대대)



안과 담당 군의관 이민섭 대위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건국대학교병원 안과에서 수련과정을 받았습니다. 세밀하게 다뤄야만 하는 눈을 치료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평소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지만, 요즘은 경제와 관련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가끔 소설을 읽으며 머리를 식하곤 합니다.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일은 책을 읽을 때의 난해함과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 이 책 역시도 글을 쓰기 시작하기 전까지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작가가 이 책을 통해 던지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지울 수 없었고, 무엇보다도 책을 읽는 내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는데 스스로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춘기 시절, 그리고 20대 초반에도 읽었던 이 책을 30대 중반이 되어 다시 읽게 되었지만 오히려 책을 읽고 나서 느껴졌던 공허함은 더 커지고 말았다.

작품은 일본의 60~70년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80년대 후반 혼란스러웠던 민주화 시기와 비슷한 느낌으로 파악된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팽창하고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개인에게 발생하는 상실과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순수한 사랑의 정서로 표현하였으나 이 작품의 의미는 연애소설의 장르 하나로 국한하기 힘들다. 시대에 대한 르포이며 사회 현상에 대한 기록처럼 느껴졌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상실과 그에 수반되는 상실감은 누구나 찾아오는 인생의 과정이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어 앞으로 나아가는 반면, 또 누군가는 나오코처럼 평생동안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하고 기즈키처럼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와타나베가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상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방황하고 또 헤쳐나가는 과정은 우리 주변에 충

분히 있을 법한 한 평범한 소년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생각에 동정심이나 안타까움보다는 책을 읽는 내내 굉장히 흥미로웠다. 이 작품에서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문제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조금은 불행한 삶의 과정들을 굉장히 담담하게 표현해 나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는 하루키의 또 다른 소설 『1Q84』 등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준다. 우리보다 개인적인 성향이 더 짙은 일본인들의 삶에 대한 태도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고, 조남주 작가의 소설 『82년생 김지영』 등에서 느껴지는 모두가 공감하고 안쓰러워하는 우리의 정서와 차이가 있었다. 흔히 동아시아라며 같은 문화권으로 엮이지만 각각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이념의 차이가 문학작품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작가는 상실에 대한 보상,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육체적 관계라는 자극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하였으나 결국엔 모두 실패하고 나오코의 죽음이라는 결과로 마무리한다. 이 또한 당시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일본 사회 성문화의 무질서와 이에 따른 사회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하여 꼬집고자 하였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끝까지 이겨내고자 했던 나오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며 인간은 어쩌면 가장 비극적인 존재가 아닐까, 그렇다고 우리는 상실에 대해 두려워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혼란스러웠다.

작품에서 나가사와는 와타나베에게 “세상이란 원리적으로 불공평해.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구.”라고 말한다. 이 문구가 정말 크게 공감이 갔다.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커져버린 빈부격차, 감히 평등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우리의 자본주의 사회를 생각해보면 압담하기 짝이 없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더욱 극심해졌다. 한 순간의 요행이나 운을 좇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한 단계 한 단계 노력하는 젊은이는 예전처럼 보기 힘들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다.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지지만, 점점 살기 어려워진다.

작가가 작품을 발표했던 1980년대 후반으로부터 30년이 지난 현대사회는 개인의 상실에 대한 깊은 고찰이나 위로를 할 틈도 없이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편지를 주고받던 와타나베와 나오코의 깊은 상호 교감의 감성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어졌으며 이제는 서로 편지를 기다리는 동안으로 상징할 수 있는 ‘사유(思惟)를 위한 시간’과 같은 여유는 더더욱 없다. 조금만 안주하면 금세 뒤쳐지는 시대를 살아가며 나 또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기는커녕 내 스스로의 정신적인 안정을 챙기기도 벅잡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 사춘기 시절이나 20대 초반에 가졌던 근거 모를 자신감과 패기는 점차 사라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앞으로 겪게 될 상실과 그로 인해 흔들리게 될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커져 그 자리를 대신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우쳤다. 책을 읽는 내내 느낀 알 수 없는 불편함, 불안감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다.

등장인물들의 아픔에 대해 안타까워했던 과거의 독서와 달랐던 점은 상실에 대한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시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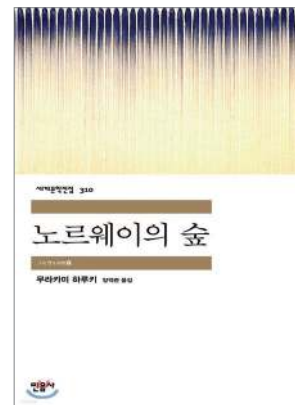
없이 앞을 향해 달려가야만 하는 현대사회의 병리적인 현상에 더 집중하게 된 것이었다. 현대사회의 청년들의 상황 자체가 어찌면 정도가 더 심각한 또 다른 불행이자 상실의 모습일 수 있겠다. 좋게는 정신과 진료를 통한 치료, 나쁘게는 중독적 약물에 의지하는 현대인이 점차 많아지는 것이 그 현상의 단면일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하루키가 생각했던 상실의 시대보다 더 큰 상실의 시대임에 틀림이 없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고 서로에 대한 비난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조금은 천천히 서로를 뒤돌아보고 다친 상처를 어루만져주면서 나아가려는 와타나베와 나오키같은 불완전했지만 소중한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점이다. 모두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 우리의 본연을 돌아보고 소중히 하며 보살피는 의식적인 행동은 언제나 필요하고 또 유용할 것이다.

본 작품은 인간의 욕망과 상실에 따른 허무함, 자아와 그것에 맞닿아 있는 세계, 삶과 죽음, 그리고 육체적 쾌락의 민낯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온상이다.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으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인간의 모순적이고 불완전한 특성을 표현하였지만 거기에서 오는 애뜻함을 두고 사람들은 ‘Life is beautiful’, 인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라는 미도리의 질문처럼 때론

돌아가더라도 나의 위치와 상태에 대하여 자문하면서 쉬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점점 메말라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학교공부 이외에 자기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은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살아간다는 것은 잃는 것이며 나를 소모하는 것이다. 적당한 안정, 적당한 좌절, 적당한 행복, 적당한 슬픔, 그리고 적당히 괜찮은 척하며 스스로를 단단하게 다져나가고 소모된 나를 치유해나가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라는 존재를 더욱 깊이 있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삶의 방식이며, 이 상실과 혼돈의 시대에서 우리의 인생을 조금은 더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AF**



「노르웨이의 숲」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민음사 펴냄

공군인의 편지

글 | 상병 윤주해(제34방공관제전대)

할아버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커다란 산

제 인생, 이 땅에 태어난 지 스물 하고도 삼 년이 지났지만 부끄럽게도 할아버지께 편지 쓰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최근 휴가를 나갔을 때도 뵈었지만, 요즘 부쩍이나 얼굴에 주름도 많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신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저려옵니다. 제 키가 훌쩍 자라버려 할아버지보다 훨씬 키졌음에도 어렸을 적 제겐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산과 같았던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자꾸만 생각납니다.

할아버지! 같은 하늘 아래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댁에 혼자 계실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대에서의 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훈련소를 거쳐 자대에 온 지 어느덧 반년, 장한 공군의 아들로 거듭나 소중한 인연들을 만들었음에 감사합니다. 보급병으로서 부대 곳곳에 필요한 물자를 불출하는 것, 위생과 청결을 위해 창고를 청소하는 것으로 제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업무가 재미있고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제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맺은 소중한 인연들을 통해 그 난관을 헤쳐나갔습니다. 제 걱정과 노고를 이해하고 들어주시는 반장님과 선임부사관님, 먼저 나서서 제 일을 자기 일처럼 도와주시는 선임들 덕분에 제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금방 털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하기 전 할아버지께서 당부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의 관계란 우연히 만나 관심을 가지면 인연이 되고 공을 들이면 필연이 된다.” 21개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속에서 할아버지의 말씀을 밑거름 삼아 필연을 만든 것이 제가 군 생활을 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지금에서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제겐 할아버지가 세상 그 누구보다도 크고 굳건한 존재이신 만큼, 저 역시 할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을 손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속한 부서와 부대의 소중한 일원으로서 묵묵히 일하는 한편, 자기계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꿈꿔왔던, 사회·경제적 약자를 조력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공군에 소속되어 주변인에게 받은 사랑을 사회의 변호사가 되어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예전엔 자주 했던 말이 아니지만, 꼭 건강하시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이곳에서 의젓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전역해서 할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을 손자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또한, 군 생활을 통해 필연도 유지하고, 정예 공군이자 약자를 돕는 변호사가 되어 저 역시 누군가에겐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산으로 남고 싶습니다. 제가 꿈을 이루어 존경하는 할아버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랑하는 가족, 애인, 친구, 동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편지양식은 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의 미학

글 | 중위 김수용(공군본부 정신전력과)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모든 커플이 당황하는 질문이 있다.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 한 마디에 화기에 애하던 커플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해진다. 답변해야 하는 사람은 핸드폰을 잠깐 덮어 두고, 빠른 눈으로 상대방을 훑어본다. 그리고 어떻게 답해야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한다. 사실 우리는 이 질문이 상대방을 난처하게 만드는 질문이라는 것을 모두 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아주 작고 사소한 변화라도 알아채 주길 바라는 마음, 나한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질문 속에 이러한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달라진 게 없냐고 물어보는 질문은 나쁜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사이를 좋게 만들어주는 질문이 될 것이다.

이 질문이 지금은 커플에게만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느슨해진, 삭막해진 관계가 만연한 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불어넣을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타인에게 관심이 없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먼 곳에 있는 타인들에게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내 옆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직접 대면하고 있는 타인에게는 관심이 없다. 우리 시간의 대부분은 미디어에 할애되고 있다. ‘언택트(Untact)’ 시대가 2년 정도 계속된 이후, 미디어는 우리 삶과 떼어 수 없을 정도로 파급력이 강해졌다. 옆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SNS의 사진 속에 있는 얼굴이 더 익숙하다.

얼마 전, 보모가 SNS를 하는 동안 5살 아이를 엘리베이터에 그대로 둔 채 나왔고, 다른 층에서 내린 아이가 보모를 찾다가 창문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지만, 미디어에서 맺는 관계에 매몰되는 모습들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함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여행. 그 여행에서조차 미디어 속 관계가 더욱 중요한 모습들이 보인다. 친구와 여행지를 가더라도 사진을 찍고, 오랫동안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사람들도 많다. 화면 속 얼굴들에 신경 쓰느라 정작 바로 앞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 몸은 같이 온 여행이지만, 마음은 따로 온 여행인 것이다.

미디어가 사람들을 휘어잡는 이유는 간단하다.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빨리 즐겁게 해주기 때문이다. 지역을 넘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을 자극적인 제목으로 우리에게 전시한다. 전시된 이야기의 화려한 불빛에 결국 우리는 자연스레 이끌린다. 불빛이 화려할수록 옆 사람과 앞 사람의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에 익숙해진 우리의 입맛은 상대적으로 싱거운 일상의 대화를 지루하게 생각한다. 그렇기에 어찌면 상대방과의 대화가 우리에게 조금 더 피곤한 일처럼 변해버린 지도 모른다.

핸드폰을 잠깐 덮어 두자. 다채로운 색깔의 얼굴들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SNS에서 잠깐 벗어나자. 조금 정적이지만, 어찌면 평범하고 소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로 흘러가는 조용한 강물에 잠깐 우리의 몸을 맡겨보자. 몸을 맡기는 순간,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느껴지지 않던 사소한 것들이 마음속에 커다랗게 찾아올 것이다. 존재감을 내비치며 찾아온 손님들을 옆 사람과 함께 공유하자. 공유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되고, 과정들이 쌓이다 보면,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두터운 관계로 엮어질 것이다.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질문을 받기 전에, “너 오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먼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AF}

마음의 소리

김은경

90w**@hanmail.net

공군 최초 100회 출격 조종사이신 제11대 공군참모총장 김두만 대장님 기사를 보면서 친정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 공군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셨던 친정아버지께서는 4년 전 돌아가신 후 영천 호국원에 안장되어 계시는데, 코로나19로 3년째 호국원을 한 번도 찾지 못해 큰딸로서 죄송한 마음이 큼니다. 김두만 대장님과 같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던 많은 분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생각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언제나 생각나는 그리운 아버지, 홀로 계신 어머니 모시고 못한 큰딸 은경이가 곧 찾아뵙게요.

(AF.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편리하고 편안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이 나라에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영령 덕분입니다. 그분들이 물려주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공군은 오늘도 임무 완수에 매진하겠습니다. 늦었지만 공군 선배 전우이자 독자님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한희

gksgml891**@naver.com

「특별한 초계비행을 마치고」라는 특집 기사를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무나 탈 수 없는 공군 전투기에 탑승하신 기사단분들은 정말 선물 같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 너무 부러웠고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전투기 비행, 그동안은 그저 '멋있다' 이런 동경의 눈으로만 바라봤는데 이번 기사를 통해 멋진 뒤에 가려진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고 정우진 기자님의 말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영공을 수호하고 있을 공군을 생각하면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언제나 흥미로운 콘텐츠를 전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F. 국방부 출입기자단이 초계비행 후 국민에게 생생한 경험담을 전달한 만큼 독자분들도 현장의 뜨거움을 느끼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이는 보이지 않는 언제나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땀 흘릴 공군을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조경은

aawwss**@naver.com

「호국보훈의 달 국민과 함께하는 공군 정기음악회」를 읽고 공군군악대가 창설된 지 70주년이 됐다는 것에 놀라웠고 국제행사에 참여하여 한국의 문화사절단 역할을 하며, 한가지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는 점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여러 방면으로 활동하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에 멋있었습니다. 음악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한 장병들의 노력이 글 속에 잘 묘사되어 있어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정기음악회도 기대가 됩니다.^^

(AF. 공군군악대는 지금껏 장병의 사기 충전도 물론이지만, 국민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공군군악대는 국민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바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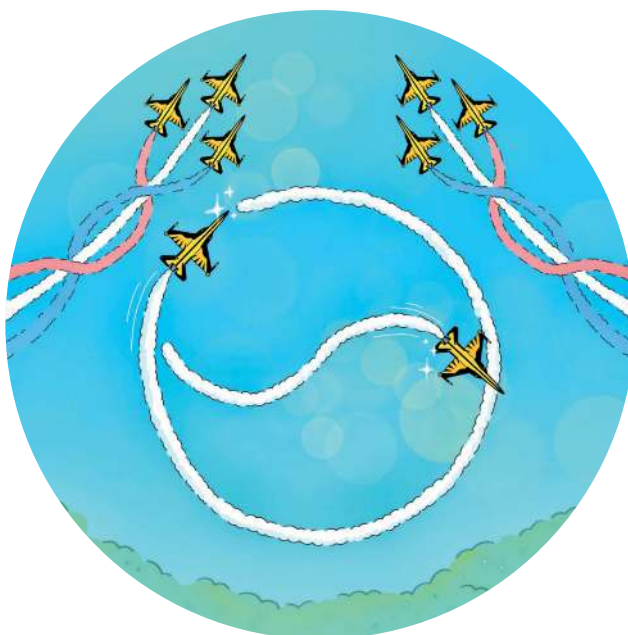
구독문의 QR코드



마음의 소리 QR코드

마음의 소리 | 월간『공군』 홈페이지(www.afzine.co.kr) <독자 의견> 업로드
(매월 15일까지 / 250자 내외 / 주 소 · 연락처 기재 필수)

공군인의 편지 | 공백포함 1,250자 내외 / 수신인 성명 · 주 소 · 연락처 기재 후 E-mail 전송
(인트라넷: kyhmm6262@af.mil / 인터넷: afzine@korea.kr)



5 3 0

